

| 국어 1-2 |

정답과 해설

공통 개념 기본서

1 문학	02
2 문법	16
3 읽기	20
4 듣기·말하기/쓰기/매체	24

1 문학

01 시

● **핵심 체크** p.010~p.011

- 1 X 2 O 3 은유 4 직유 5 의인 6 추상적 7 O 8 상
9 상 10 비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12~p.013

- 01 ① 반복 ② 시각적 ③ 공감각적 ④ 정서 ⑤ 사람 ⑥ 추상적
02 ⑤ 03 ④ 04 ③ 05 ④, ⑤ 06 (1) 함축적 (2) 리듬감
(3) 정서 표현 (4) 내재율 07 ⑤ 08 (1) ㉠ (2) ㉡ (3) ㉢ (4) ㉣
09 ④ 10 ③

02 화자의 갈등이 드러나는 시 작품도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 갈래는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 그리고 어조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 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한다. 갈등과 그 해결 과정으로 주제를 형상화하는 갈래에는 대표적으로 극과 소설이 있다.

03 화자의 정서는 화자가 시 속 상황이나 대상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생각이므로 시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04 시의 3요소는 '주제, 운율, 심상'이며, 제시된 설명은 시의 심상과 관련이 있다.

05 <보기>에는 의성어의 반복, 일정한 글자 수의 반복은 나타나지 않는다.

Clinic **오답 강의**

① '길', '~도'와 같은 말을 반복함. ② 음운 'ㄱ', 'ㄹ', 모음 'ㅛ'와 같은 소리를 반복함. ③ '~를 ~서 ~로'의 문장 구조를 반복함.

06 시는 운율이 있는 언어를 사용해 리듬감이 느껴지며, 시인의 생각을 함축적인 언어로 전달하는 정서 표현의 글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자유시는 내재율, 정형시는 외형률을 지닌다.

07 '귀뚜라미 울음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이 떠오르는 동시에, 이를 '새벽까지 시린(차가운 느낌)'이라는 촉각적 경험으로 전이해 표현하여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촉각화)을 떠오르게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시각적 심상, ② 청각적 심상, ③ 미각적 심상, ④ 후각적 심상, ⑤ 공감각적 심상(청각의 촉각화)

08 (1) '~같은'을 사용해 '마을'을 '포도송이'에 직접 빗댄. (2) 사람이 아닌 '갈잎'이 노래를 한다고 표현함. (3) '듯이'를 사용해 길 가는 '나그네'를 구름에 달이 가는 모습에 직접 빗댄. (4) 연결어 없이 '개나리'를 '노란 전구'에 은근히 빗댄.

09 제시된 시에서 '술(소나무)'은 '눈서리'에도 뿌리를 굳게 내리는 존재로, 어떠한 고난과 시련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인 '지조와 절개'를 상징한다. 이 시조는 '소나무'와 '눈서리'라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지조와 절개, 고난과 시련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10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 사이에 유사성이 있지만 상징은 둘 사이의 유사성이 분명하지 않다.

(1) 하늘의 별 따기

● **내용 확인** p.014

- 1 O 2 X 3 O

● **작품 마무리** p.014

소유, 대화, 별, 돌, 동경, 제자리, 가치

차근차근 실력 체크 p.015

01 ④ 02 ② 03 ⑤ 04 ④ 05 ④ 06 예시 답안 막상 손에 넣으면 가치를 상실하는 존재이다. / 소유하는 순간 가치를 잃어버리는 존재이다. 07 예시 답안 '별'과 '돌'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가치 있는 대상은 제자리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주제를 전달하였다.

01 이 시는 '별'을 따 달라는 아이와 이를 만류하는 엄마의 대화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나 두 사람 간의 대립과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02 이 시의 '별'은 손에 넣으면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대상을 의미하지만 <보기>의 '별'은 화자가 '외로울 때' 다가오는 존재, 즉 위로와 힘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므로 오히려 화자와 가까이 있을 때 더 의미가 있는 존재이다.

03 상징은 하나의 표현이 여러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미를 압축적으로 전달할 뿐, 간결한 의미 전달을 목표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리듬감은 상징이 아니라 특정 요소를 반복해 운율을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4 이 시는 하늘의 별과 같이 간절하게 원하는 대상은 막상 갖게 되면 그 가치를 잃을 수 있다는 주제를 전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지어 예문을 이해하면 '막상 우승하고 나니 우승의 의미가 없어졌다'와 같은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05 '별'은 멀리 제자리에 있을 때 더 아름다운 존재이다. 훗날 가치가 상승할 대상이기 때문에 현재 제자리에 둔다는 내용은 이 시의 주제와 맞지 않다.

- 06 '돌'은 10연에서 '땅에 내려오는 순간' '시들어 버리게 된 '별'을 의미한다. 즉 '돌'은 멀리서 반짝이는 '별'과 대립되는, 가까이 있지만 생기를 잃고 시들어 버린 존재를 상징한다.
- 07 '별'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대상, '돌'은 그러한 대상이 생기를 잃은 모습을 의미한다. 이 시는 이러한 상정을 통해 동경하는 대상은 갖는 순간 그 가치를 잃게 된다는 주제를 전달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어로 '별', '돌'을 밝힘.	1점	3점
이 시의 주제를 적절하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길

● 내용 확인

p.016

1 ○ 2 X 3 ○

● 작품 마무리

p.016

소리, 르, 포도, 화합, 포도송이, 직유법, 은유법, 주제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17

01 ⑤ 02 ② 03 ④ 04 ③ 05 집이 늘어날 때마다 마을이 커진다. 06 ③ 07 예시 답안 화자는 사람들이 한 덩어리로 뭉쳐서 서로 도우며 화합하는 세계를 바란다.

- 01 포도를 세상에 빚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화합해 살아가는 세상(원관념)을 한 덩어리 포도(보조 관념)에 빚대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었다.
- 02 운율은 같거나 비슷한 표현이나 글자 수, 음보의 반복이나 음성 상징어의 사용으로 형성되며, 이미지가 확장되는 느낌은 운율과 같은 시의 음악성에는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 어렵다.
- 03 <보기>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는 '눈'이 마치 사람과 같이 많은 도전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는 표현으로, 의인법이 쓰였다.
- 04 이 시와 <보기>는 같은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는 특정 소리와 시어의 반복, 의도적인 시행의 배치, 직유와 은유 등의 표현 방법을 사용해 그 내용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와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유사성이 없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5 3연의 '포도알'은 집, '포도송이'는 마을을 뜻하며 포도알이 늘어서 포도송이가 커지는 것처럼 집이 늘어날 때마다 마을이 커짐을 표현하는 것이다.
- 06 '포도 덩굴'의 원관념은 '길'로, '포도 덩굴'과 '길'은 여러 갈래로 뻗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은 관련 없는 성질이다.
- 07 4연에서 사람들이 서로 돕고 마을들이 연결된 세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5연에서 이러한 화합으로 성장해 가는 세계를 익어가는 한 덩이 과일에 빚대고 있다. 화자는 이를 통해 하나로 뭉쳐 화합된 세계, 하나가 되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세계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화합'의 의미를 담아 예시 답안에 가깝게 내용을 서술함.	2점	3점
글자 수의 조건을 충족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3) 봄날 아침

● 내용 확인

p.018

1 X 2 X 3 ○

● 작품 마무리

p.018

음성, 단어, 문장, 빗방울, 활유, 생물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19

01 ⑤ 02 ㉠-㉡, ㉢-㉣, ㉤-㉥ 03 ② 04 ⑤ 05 ③ 06 예시 답안 시를 읽을 때 리듬감을 느끼게 하며 시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한다.

- 01 이 시는 비가 온 다음날 아침의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지만 비가 오기 전의 풍경과 대조한 것은 아니다.
- 02 이 시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고, 같거나 유사한 문장 구조와 시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⑥는 활유법에 관한 설명으로, 3연에서 활유법이 쓰이기는 했으나 이는 의미 전달에 영향을 끼쳤을 뿐 운율 형성과는 관련이 없다. ㉠ 감탄사나 감탄형 어미를 반복해 쓰면 운율을 형성할 수 있으나 이 시는 3연에서 감탄사 '아'가 한번 쓰였을 뿐 반복해 쓰이지 않았다.

- 03 이 시는 봄날 아침의 상쾌하고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다. '적막함'은 '고요하고 쓸쓸함'을 의미하므로, 이 시의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 04 <보기>는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말을 직접 표현한 것이며, 이 시의 3연은 활유법을 사용하여 '기쁜 일'과 '고운 노래'를 살아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하고자 하는 말이 이해하기 쉽게 직접 전달되는 것은 <보기>이다.
- 05 ㉠과 같이 참새가 빗방울 쪼는 모습을 피아노 치는 것에 빗댄 것은 대상을 반복적으로 누르는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 06 음성 상징어 사용, 단어와 문장 구조의 반복 등으로 운율을 형성하여 낭송할 때 리듬감을 느끼게 하고, 시 전체적으로 경쾌하고 생동감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운율 형성으로 얻은 효과 두 가지를 적절하게 씀.	4점	4점
운율 형성으로 얻은 효과 한 가지만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4) 별밤에

● **내용 확인** p.020

1 X 2 O 3 X

● **작품 마무리** p.020

호흡, 소리, 별, 내면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21

01 ④ 02 ⑤ 03 ③ 04 ②, ④ 05 ③ 06 맑게 살리라 / 사랑하며 살리라 07 예시 답안 산이 우주의 소리를 매우 강하게 긍정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 운율을 형성한다.

- 01 각 연이 2행으로 구성된 것은 운율과 관련이 있으며, 시에 특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은 하지 않았다.
- 02 1연은 직유법, 2연은 은유법을 사용하였으므로 연결어 없이 원관념을 보조 관념에 은근히 빗댄 표현이 쓰였다는 설명은 3연에만 해당한다.

04 ● 체크체크 국어 1-2

- 03 화자는 우주의 소리를 포착해 듣기 위해 '굴참나무 잎새 두 개'를 귀에 대었다. 고요히 내면에 집중하며 우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화자의 모습으로 볼 때, '내면의 소리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4 밑줄 친 부분의 바로 앞부분에서 '화자의 다짐에 공감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자연의 모습을 통해'라고 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6연과 7연으로, 우주의 소리를 듣는 화자에게 '산'이 고개를 끄덕이고 '강물'이 귀를 기울인다고 표현하여 화자와 자연의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 05 이 시의 화자는 밤이라는 어둡고 고요한 시간을 배경으로 자기 내면에 집중하며 자연과 교감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①, ②, ④, ⑤는 모두 타당한 해석이다. 화자가 현실의 막막함을 깨닫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③은 적절하지 않다.
- 06 화자는 고요한 별밤에 굴참나무 잎새 두 개를 귀에 대고 귀 기울여 '우주의 소리(㉠)'를 포착하려 한다. 화자가 포착한 우주의 소리는 4연('맑게 살리라 / 사랑하며 살리라')에서 제시되는데, 이는 결국 화자 내면의 소리이자 화자의 다짐으로 볼 수 있다.
- 07 같은 말인 '그레'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한편, 산들이 우주의 소리를 매우 강하게 긍정해 주는 느낌을 표현하였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두 가지 효과를 모두 언급함.	2점	3점
각각 한 문장으로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5) 우리 둘이

● **내용 확인** p.022

1 X 2 O 3 O

● **작품 마무리** p.022

노래, 분수, 정민이랑 나, 지느러미

- 01 ③ 02 ⑤ 03 ④ 04 ⑤ 05 굽은 내 등 06 ③
07 (1) 정민이랑 나 (2) 서로 의지하며 함께한다.

- 01 이 시의 제목은 '우리 둘이'로, 서로에게 힘을 주며 노래하는 두 친구('나'와 정민)를 '고래'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무리의 고래가 아닌, 바다 위로 솟구치는 두 마리의 고래를 떠올리는 것이 더 어울린다.
- 02 노래하며 자유로움을 느끼는 화자와 정민이를 헤엄치는 두 고래에 빗대었을 뿐 화자와 정민이가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03 이 시의 화자는 서로에게 힘이 되는 친구와 함께 노래하며 현실의 답답함을 후련하게 쏟아내고 있으므로 ④와 같은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 04 <보기>는 시인이 생각하고 느낀 것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여 1연에 비해 뜻이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전달된다. 반면 1연은 '고래가 튀어나올 것 같'다고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여 명확성과 직관성이 비교적 떨어지지만 독자에게 더 깊은 인상을 준다.
- 05 이 시의 화자는 자신을 고래에 빗대어 표현하였으며, 4연에서는 '나'의 힘겨운 삶을 '굽은 내 등'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였다. 정민이는 이와 같은 '나'의 고단함과 답답함을 '지느러미로 쓰다듬어'주며 위로하고 있다.
- 06 ㉠은 '~처럼'이라는 연결어를 사용해 직접 빗댄 직유법이, '내 마음은 호수요'는 연결어 없이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빗댄 은유법이 쓰였다.
- 07 이 시에서 '나'와 '정민'은 고래에 빗대어 표현되고 있으며, 5연에서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함께한다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세상 끝까지 헤엄치는 돌고래'로 표현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1)에 '정민이와 나', (2)에 '의지' 또는 '함께'를 포함하여 씀.	2점	3점
글자 수의 조건을 충족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소설

● 핵심 체크 p.025~p.028

- 1 허구적 2 ○ 3 전개, 위기 4 ○ 5 간접 6 외적 7 X
8 내적 9 ○ 10 주제 11 X 12 배경 13 ○ 14 1
15 X 16 전지적 작가 17 갑오개혁 18 권선징악, 행복
19 우연적, 필연적 20 ○ 21 간접 22 ○

차곡차곡 개념 체크 p.029~p.030

- 01 ① 허구성 ② 외적 ③ 배경 ④ 위기 ⑤ 관찰자 ⑥ 전지적 02 ④
03 배경 04 ㉠ - ㉡ - ㉢ - ㉣ - ㉤ - ㉥ 05 ④ 06 ② 07 ⑤
08 1인칭 관찰자 시점 09 ㉠, ㉡, ㉢ 10 ⑤

- 02 소설은 현실에 있음 직한 일을 작가가 상상하여 꾸며 낸 이야기로, 그 속에 삶의 진실과 참모습을 담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소설은 현실에 있음 법한 일을 다루지만 실제와는 다른, 작가가 상상으로 꾸며 낸 이야기이다. ② 소설은 줄거리 된 산문 문학의 한 양식으로, ②는 시에 대한 설명이다. ③ 서술자 없이 인물의 대사만으로 사건을 전달하는 것은 극 문학의 특징이다. ⑤ 소설에서 작가의 직접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소재로 삼을 수는 있으나 소설 속 '나'는 허구적 인물이다.

- 03 소설 구성의 3요소인 '인물, 사건, 배경' 중 분위기를 형성하고 인물의 심리를 드러내며, 사건 전개에 사실감을 부여하는 것은 '배경'이다.
- 04 ㉠: 발단 - ㉡: 전개 - ㉢: 위기 - ㉣: 절정 - ㉤: 결말
- 05 개성적인 문장 표현과 관련된 것은 문체로, 소설에서 갈등을 통해 문체가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 06 제시된 소설에는 '나'와 점순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나타나 있다.
- 07 '머칠 전 일이다.'로 볼 때, 이 글은 현재 시점의 사건이 제시된 후 과거 일이 제시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08 작품 속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이 아닌 '나'가 중심인물과 사건을 관찰하여 전달하는 것은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다.

09 Clinic 오답 강의

㉠ - 고전 소설에는 문어체와 운문체가 나타난다. ㉡ - 고전 소설의 인물은 전형적, 평면적 성격을 띤다. ㉢ - 고전 소설에는 주로 전지적 작가 시점이 나타난다.

- 10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이 정답은 아니며, 개인의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성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자전거 도둑

핵심 포인트

p.032~p.036

- 01 청계천, 주인 영감 02 동정, 물건 대금, 장사꾼, 돈
- 03 자전거, 쾌감, 도망 04 도둑질
- 05 누런 똥빛, 아버지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32~p.036

- 1 ⑤ 2 ③ 3 부지런함 4 ① 5 인물, 외적 6 ② 7 ③
- 8 수남이의 자전거가 쓰러져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을 냈다. 9 ③
- 10 ④ 11 ④ 12 ② 13 ② 14 ② 15 ④ 16 ③
- 17 ②, ④ 18 마침내, 빛났다

- 1 수남이는 전기용품 도매상의 점원으로 주인 영감과 혈연관계는 아니다.
- 2 주인 영감은 겉으로는 수남이가 물들까 봐 직원을 더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수남이에게 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모두 시키는 것으로 보아 인건비를 아끼려고 사람을 더 쓰지 않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3 (다)에서 수남이의 '부지런함'이 직접적으로 언급된 한편 수남이의 행동 묘사를 통해서도 수남이의 부지런하고 성실한 성격이 드러난다.
- 4 떨어진 간판에 맞아서 다친 사람을 걱정하기보다는 치료비를 부담해야 할 전선 도매집 주인을 동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돈을 가장 중시하는 물질만능주의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5 물건 대금을 주지 않으려는 ××상회 주인과 이를 받아 내려는 수남이 사이의 외적 갈등이 드러나 있다.
- 6 수남이는 감정적으로 애원하기보다는 급한 돈이라고 둘러대고, 억지로 웃으면서 ××상회 주인의 비위를 맞추는 등의 행동을 보였다.
- 7 ××상회 주인은 장사가 잘되는데도 물건 대금 결제를 미루려고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기적이고 비양심적인 성격이다.
- 8 바람 때문에 수남이의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을 낸 일 때문에 신사가 화를 내고 수리비를 요구하며 수남이와 갈등하고 있다.
- 9 신사는 어린 수남이에게 자동차 수리비로 큰돈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야박하고 이기적이며, 용서를 비는 수남이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냉정하므로 너그러운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다.
- 10 신사의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눈치채고 소리 내어 운 것

으로 보아, 수남이가 신사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 운 것이라 짐작할 수 있다.

- 11 수남이는 자신의 자전거가 신사의 차에 흠집을 냈다는 말에 우는 한편, 신사가 요구하는 수리비를 듣고 놀라고 당황한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수남이가 아쉬워하는 모습은 나타나 있지 않다.
- 12 수남이는 신사가 차 수리비를 요구하며 자전거를 잡아 두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치는 방법으로 갈등 상황에서 벗어난다.
- 13 수남이가 '도둑놈 꼴'이라는 말이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 것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일 것이다.
- 14 수남이는 자신의 잘못을 야단치기는커녕 칭찬하며 애정 표현을 하는 주인 영감의 손이 싫다고 했으므로 수남이가 애정 표현을 기대했다고 볼 수 없다.
- 15 ㉠에서 수남이는 자신이 낮에 자전거를 들고 도망칠 때 쾌감을 느낀 일을 떠올리며 자기 내부의 부도덕성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에서 수남이가 낮에 느낀 쾌감을 다시 느끼고 싶어 하는 심리가 드러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6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남이를 칭찬한 주인 영감과 달리 아버지는 수남이를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어른으로, 도덕성을 상징한다.
- 17 ㉡은 수남이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내려갈 결심을 하면서 내적 갈등이 해소될 것임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 18 수남이의 얼굴에서 비양심을 상징하는 '누런 똥빛'이 사라지고 양심의 회복을 상징하는 '소년다운 청순함'이 나타났다는 문장을 통해 수남이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p.037

- ① 성실 ② 도덕적 ③ 수리비 ④ 쾌감 ⑤ 고향

●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38~p.039

- 01 ② 02 ③ 03 ② 04 예시 답안 수남이의 자전거가 바람에 의해 쓰러지면서 '신사'의 자동차에 흠집을 냈기 때문이다. 05 ①
- 06 ③ 07 ② 08 예시 답안 수남이를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대상으로 수남이가 그리워하는 어른이다.

- 11 같이 수박을 처리해야 할 세영, 인정, 지원이 수박을 처리하지 않고 가려 하자 '나'는 당황스러움과 황당함을 느끼고 있다.
- 12 '나'는 수박을 딴 지원이가 수박 문제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먼저 간다는 지원이의 말에 뜻밖의 말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 13 '나'가 "그만 만져. 누가 본단 말이야."라고 한 것으로 보아, '나'는 가방 속의 수박을 다른 이에게 들키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4 '나'가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이가 계속 가방을 만지자 '나'는 자신이 수박 문제를 해결해 주어 지원이가 감정이 넘친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나'는 지원이가 수박을 '나'에게 준 것을 아까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 15 (카)에서는 새로운 인물인 민아가 등장하며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 16 '나'의 가방에 무언가 들어 있음을 눈치채고 수다를 떨며 가방을 여는 모습으로 보아 활달하고 수다스러우며 눈치가 빠른 성격임을 알 수 있다.
- 17 '나'와 지원이는 수박 주인이 교장 선생님이라는 민아의 말을 듣고 눈이 '황소 눈만 했을 것'이라 표현할 정도로 매우 놀란다.
- 18 '나'가 '양심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미 딴 수박을 있던 데 다시 갖다 놓는 것이다.
- 19 (하)에서는 수박을 원래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려는 지원이와 그것에 반대하는 '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20 (하)에서 지원이는 수박을 갖다 놓겠다며 감정적으로 행동하다 마음대로 되지 않자 화를 내며 가 버린다. 이러한 모습은 열정적인 것과 관계없다.
- 21 은비가 제시한 해결 방법은 앞서 민아가 제시한 것과 같이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으로 '나'가 양심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방법이다.
- 22 (거)에서 혼자 수박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나'는 수박 처리에 대한 부담감과 자기를 두고 간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으로 마음이 무거웠을 것이므로 친구들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23 은비는 어려움에 빠진 '나'를 도와주러 와서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 방법이 양심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24 '나'의 내적 갈등과 지원이와의 대립으로 인한 갈등은 남아 있으나, '나'는 은비에게 고마움과 따뜻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은비와의 외적 갈등이 암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 **작품** **인눈에 보기** p.047

- ① 비유 ② 양심적 ③ 결단력 ④ 지원이 ⑤ 지원이 ⑥ 지원이 ⑦ 은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48~p.049

- 01 ④ 02 ④ 03 ① 04 예시 답안 지원이가 총동적으로 수박을 따 '나'와 친구들이 갈등하는 사건이 생겼는데 결국 책임지지 않고 '나'에게 수박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아 무책임하다. 05 ④ 06 ③ 07 ⑤ 08 예시 답안 은비의 제안에 따라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 01 이 글은 '나'의 시선에서 '나'와 친구들이 얽힌 사건을 전달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서술되었다.
- 02 (라)에서 '나'가 자신과 은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타날 뿐, 은비와 '나'의 외적 갈등은 이 글에서 찾을 수 없다. 이 글에 나타난 외적 갈등은 수박을 다 같이 먹자고 한 '나'와 이에 반대하는 친구들 사이의 갈등이다.
- 03 '나'는 생각이 많고 양심적이며,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우유부단하다. 수박 문제에서 손을 떼고 싶음에도 마음을 고쳐먹는 것으로 보아 책임감이 강하고 친구와의 우정과 의리를 중시한다. 이기적인 면모는 보이지 않는다.
- 04 (가)에는 지원이가 멋대로 수박을 따는 모습이, (마)에는 지원이가 수박 처리를 '나'에게 떠맡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지원이의 태도를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근거에 부합하는 평가를 적절히 제시함.	2점	4점
지원이의 행동을 근거로 제시함.	1점	
갈등 양상과 '나'의 심리를 근거로 제시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5 (가)에는 민아가 제시한 수박 처리 방법을 듣고 고민하는 '나'의 내적 갈등이, (나)에는 '나'의 태도에 화를 내는 지원이와 '나'의 외적 갈등이 나타난다.
- 06 '나'는 은비에 대한 고마움으로 따뜻함을 느끼는 한편,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기만적인 일이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수박 사건을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07 ⊕은 이미 딴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은 행동에 대한 '나'의 인식을 보여 준다.
- 08 '나'는 수박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하다가 은비의 제안에 따라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음으로써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수박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음을 씀.	2점	3점
은비의 제안에 따랐음을 주어진 형식에 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5 이 글에서 아빠가 '나'에게 기대를 표현하거나, '나'가 아빠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다만 아빠가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며 '나'에게 당부를 하고, 그러한 아빠의 의기소침한 모습에 '나'가 고개를 떨구며 좌절감을 느끼는 모습이 나타난다.

06 (라)에서 자식에게 애써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려 노력하는 아빠를 보며 '나'가 '환하게 웃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한 것에서 아빠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07 ㉔은 자신이 잘 아는 답에 대해 자신 있게 말하며 의기소침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아빠의 태도를 보여 준다.

08 (라)에서 아빠는 자신이 잘 아는 답에 대해 말하며 의기소침함에서 벗어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㉔와 같은 생각은 아빠를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라)를 바탕으로 아빠가 의기소침한 마음을 이겨 내려 힘을 씀.	2점	4점
'나'가 아빠에게 힘을 주고 싶어 힘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4) 홍길동전

핵심 포인트

p.059~p.062

- 01 사회, 신분, 적서 02 호부호형
03 입신양명, 영웅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59~p.062

- 1 ⑤ 2 ⑤ 3 ③ 4 ② 5 ② 6 ④ 7 인륜 8 ① 9 ⑤
10 대감, 아버님 11 ③ 12 ④ 13 탐관오리들이 백성의 고혈을 빨아서 모은 재물을 빼앗았사오나 14 ⑤

- (가)에서 대감은 길동의 재주를 눈여겨보고 길동을 아끼고 사랑했다고 했다.
-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는 것은 신분을 뛰어넘어 능력에 따라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음을 뜻하는데, 신분제 사회이고 적서 차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없다고 여겨지는 사회였다고 볼 수 없다.
- (가)~(다)에는 길동과 적서 차별 사회와의 갈등이 나타나며, 여기에서 비롯된 길동의 내적 갈등이 나타난다.

4 (라), (마)에서 당대의 부모들이 자식에게 무관심했다는 시대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홍 대감과 춘섬은 길동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개인이 어찌할 수 없는 사회적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길동에게 참고 지내라고 하는 것이다.

5 홍 대감은 속으로는 길동을 불쌍하게 여기나 그 마음을 드러내면 길동이 버릇이 없어질까 봐 "방자하게 굴지 말아라."라고 한 것이다. 따라서 홍 대감이 진심으로 길동이 방자하다고 (무례하고 건방지다고) 여긴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6 길동은 입신양명을 이루지 못할 바에야 속세를 떠나겠다고 하며 길산을 본받아 집을 떠나려 한다고 했다.

7 길동은 초냥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에 분노하여 초냥을 없애고 싶었으나, 초냥은 의붓어미이므로 인륜을 저버리지 않으려는 마음에 분노를 참았다.

8 '변고'가 일어나 목숨을 구하고자 집을 나가려 한다는 것으로 보아, '변고'는 홍 대감의 첩 초냥이 자객을 보내 길동을 죽이려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9 홍 대감은 길동이 집을 떠나는 것을 말리고 있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다.

10 길동은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아버지를 '대감'이라고 불렀으나, 홍 대감이 호부호형을 허락하자 호칭을 '아버님'으로 바꾸었다.

11 여덟 길동이 짚으로 만든 제용으로 변한 것, 길동이 공중으로 사라진 것들은 모두 비현실적 요소에 해당한다.

12 길동의 요구에 따라 임금이 길동에게 병조 판서의 벼슬을 내림으로써 인물과 인물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있을 뿐 길동과 사회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13 길동이 활빈당 활동을 통해 탐관오리들이 부당하게 모은 재산을 빼앗았다는 것에서 탐관오리의 횡포가 있었던 당시의 시대상이 드러난다.

14 (자)에는 울도국을 건설하고 왕이 되어 태평성대를 이룬 길동의 업적이 나타나 있다.

● 작품 한눈에 보기

p.063

- ① 사회 ② 서얼 ③ 호부호형 ④ 내적 ⑤ 적서 ⑥ 울도국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64~p.065

- 01 ④ 02 ③ 03 ④ 04 소인, 소자 05 예시 답안 출생이 천한 탓에 입신양명을 이루기 어렵고 호부호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06 ⑤ 07 ④ 08 ⑤ 09 예시 답안 불합리한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과 이상국 건설

- 01 이 글은 적서 차별로 인한 홍길동의 갈등, 즉 인물과 사회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02 (나)에서 대장부라면 학문을 익힌 뒤 나가서는 장수가 되고 들어와서는 재상이 된다고 했을 뿐 글 읽기보다 무예를 익히는 것을 중시했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 03 (가)에서는 대감이 길동을 무척 아끼고 사랑하였다고 했고, (다)에서는 대감이 길동을 불쌍히 여기면서 버릇이 없어질까 염려하여 짐짓 꾸짖었다고 했다. 따라서 대감이 길동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 04 (다)에서 길동은 대감에게 '소인이 대감의 정기를 받고 당당한 남자로 태어났으니'라고 한 한편, (라)에서 길동은 어머니에게 '소자보다 더한 천생이었습니다.'라고 했다.
- 05 길동은 어머니가 노비라 서얼이기 때문에 천한 출생이라고 천대받고, 입신양명과 호부호형이라는 소망을 이룰 수 없어 한탄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근본적인 원인으로 천비의 몸에서 태어난 것, 출생이 천하다는 점을 씀.	1점	5점
소망으로 입신양명과 호부호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해 갈등함을 씀.	각 2점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림.	-1점	

- 06 이 글은 허균이 지은 한글 소설로 판소리를 바탕으로 창작된 소설이 아니며 운율이 느껴지는 표현도 두드러지지 않는다.
- 07 길동이 자신의 요구대로 병조 관서의 벼슬을 얻은 뒤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은 길동이 활빈당 활동 때문에 겪게 된 위기를 극복한 모습으로, 이때 임금은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볼 수 없다.
- 08 (다)에서 길동이 조선을 떠나 울도국의 왕이 된 것은 (나)의 갈등이 해결된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09 (나)에는 적서 차별 제도와 탐관오리의 횡포를 비판하는 모습이, (다)에는 길동이 울도국을 건설해 태평성대를 이룬 모습이 나타나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불합리한 사회 제도(현실) 비판, 이상국 건설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씀.	각 2점	4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극

핵심 체크

p.067

- 1 ○ 2 X 3 막과 장 4 X 5 시나리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68

- 01 ① 절정 ② 서술자 ③ 영화 ④ 장면 표시 ⑤ 적음 02 ②
03 ④ 04 (1)㉠ (2)㉡,㉢ 05 ⑤

- 02 극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작가가 현실에 있음직한 일을 상상하여 허구적으로 창조한 이야기이다. 작가가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하는 글은 수필이다.
- 03 희곡의 구성 요소에는 해설, 대사, 지시문이 있으며 밑줄 친 부분은 엄마의 동작을 지시하는 지시문에 해당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③ 독백은 대사의 종류 중 하나이며, ⑤ 장면 표시는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이다.

- 04 희곡은 막과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간과 공간,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많이 받는다. 반면에 시나리오는 장면 번호로 내용이 구분되며 시공간과 등장인물 수에 대한 제약이 희곡보다 적다.

Clinic 오답 강의

㉢ 등장인물 수에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은 소설이다.

- 05 밑줄 친 부분은 화면에 나타나지 않는 인물의 목소리나 소리를 가리키는 '보이스 오버'의 약자로, 카메라 촬영이나 편집을 위한 시나리오의 특수 용어 중 하나이다.

(1) 아이 캔 스피크

핵심 포인트

p.071~p.075

- 01 영어, 민재, 영어 02 단념, 어려운
03 저녁밥, 간절함 04 남동생, 증언, 피해자, 일본군, 이유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70~p.075

- 1 ⑤ 2 ④ 3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하였다. 4 ② 5 ④ 6 ④
7 ⑤ 8 ④ 9 ④ 10 좌절 11 ④ 12 ④ 13 ② 14 ㉠
→ ㉡ → ㉢ → ㉣ 15 ④ 16 ④ 17 낮은 흑백 가족사진 18 ⑤
19 청문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다. 20 ①

- 1 이 글은 영화 상영을 전제로 쓰인 시나리오로, S#으로 표기되는 장면 번호로 장면을 구분한다. ‘막’과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는 것은 희곡이다.
- 2 <앞부분 줄거리>에 따르면 옥분은 영어 실력이 늘지 않아서 어학원에서 퇴짜를 맞았다.
- 3 옥분이 요구하는 영어 과외를 민재가 거절하자 옥분은 그동안 쌓아 놓은 민원을 넣겠다고 은근히 협박하고 있다.
- 4 옥분이 그동안 단어 위주로 공부했다며 여러 영어 단어를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옥분은 영어 실력을 늘리고자 꾸준히 공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 5 (가)~(다)는 영어를 공부시켜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는 옥분과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민재 사이의 외적 갈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6 옥분이 복지 회관에서 ‘클락’과 ‘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자신 뿐이라고 말할 때 지시문이 ‘우쭐하며’인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옥분은 알파벳을 정성껏 썼다. ② 민재는 옥분을 못마땅한 표정으로 바라 보았다. ③ ‘내가 교만했네.’라는 옥분의 대사로 볼 때, 항의하는 장면은 적절 하지 않다. ⑤ ‘CUT TO.’로 볼 때, 민재가 옥분이 앉은 창가 책상까지 걷는 장면은 생략될 것이다.

- 7 (라)의 내용으로 볼 때 민재는 영어 단어 시험에서 옥분이 80점 이상 맞으면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했다.
- 8 민재가 미안해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이십 문제가 대개 어려운 단어인 것으로 볼 때, 민재가 의도적으로 어려운 단어를 골랐음을 추측할 수 있다.
- 9 좋은 점수를 받아 영어를 꼭 배우고 싶은 옥분의 입장, 옥분의 요구를 거절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어려운 단어 시험을 보자고 한 민재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알맞은 지시문을 골라 본다.
- 10 영어를 간절히 배우고 싶으나 학원에서조차 쫓겨나고 민재에게도 배울 수 없게 되는 옥분의 상황을 ‘좌절’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은근히 드러내고 있다.
- 11 ‘이 상황이 익숙한 듯 편하게 식사를 하는 영재’라는 지시문으로 볼 때, 영재가 종종 옥분의 집에서 식사를 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 12 (바)의 지시문과 대사를 보면 옥분이 요리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으리란 것을 알 수 있다. 민재와 영재가 마주 앉은 장면이 제시되고,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소리’로만 처리된 옥분의 대사를 통해 옥분이 요리를 하면서 민재에게 말을 건네고 있음이 표현된다.
- 13 옥분이 민재 동생의 식사를 챙겨 줬던 사실이 드러난 앞부분의 상황으로 볼 때, 옥분이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음이 드러나

는 ㉠이 옥분과 민재의 갈등이 심화될 것을 암시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4 ㉡ 옥분이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함. → ㉢ 민재가 옥분에게 어려운 단어 시험을 보게 하여 옥분의 영어 공부를 단념시키려고 함. → ㉣ 옥분이 영재를 돌봐 준 사실과 옥분의 간절함을 민재가 알게 됨. → ㉤ 민재가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함.
- 15 옥분을 못마땅해하던 민재는 옥분이 영재의 저녁밥을 챙겨 주고, 혼자서도 열심히 영어를 공부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옥분을 달리 바라보게 되며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약속하게 된다.
- 16 옥분의 집에서 저녁밥을 먹은 후 민재가 영재를 바로 학원에 보낸 것은 원칙주의자라는 민재의 성격을 드러낸 것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옥분 할머니 때문에 영재가 공부에 소홀하다고 걱정하는 모습은 찾을 수 없다.
- 17 (아)에서 옥분은 지갑에서 ‘낡은 흑백 가족사진’을 꺼내며 남동생이 있음을 고백하고 있다.
- 18 (자)에서 옥분은 오랜 시간 열심히 증언해 왔던 정심과 달리 자신은 60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다. 따라서 정심과 오래 전부터 증언을 준비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 19 옥분은 치매 때문에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정심을 대신해서 자신이 위안부 피해 사실을 증언하려고 한다.
- 20 옥분이 영어를 배우려는 이유 중 하나가 동생과 대화하기 위함이라는 하지만, 만행을 저지른 일본이 아직까지도 사과하지 않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관련지어 제목 ‘아이 캔 스피크’의 의미를 파악할 때, ①은 알맞지 않은 답이다.

작품 한눈에 보기 p.076

① 민원 ② 위안부 ③ 진취적 ④ 절차 ⑤ 냉정 ⑥ 영어 ⑦ 고마움
⑧ 열정 ⑨ 피해자 ⑩ 증언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77~078

01 ㉡ 02 ㉢ 03 ㉤ 04 영어를 가르쳐 주는 것
05 예시 답안 영어 단어 시험을 봐서 80점이 되면 정식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다. 06 ㉤ 07 ㉡, ㉢ 08 ㉡ 09 예시 답안 한 국말을 못하는 남동생과 대화하고 싶고, 위안부로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하고 싶어서이다.

- 01 (가)에서 옥분은 ‘시위하듯’ 대기 의자에 앉아 있으므로 ‘의기 소침한 자세’는 어울리지 않는다.

02 '옥분'이 '민재'에게 영어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민재가 거절하면서 두 인물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이는 인물과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인물과 사회, ②와 ④는 인물의 내적 갈등, ⑤는 인물과 자연과의 외적 갈등이다.

03 민재가 낸 스무 문제는 옥분이 풀기에는 너무 어려운 수준이다. 이로 볼 때, 민재가 일부러 옥분이 맞히기에 쉽지 않은 단어를 위주로 문제를 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5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다)를 바탕으로, 단어를 외워 오면 정식으로 영어를 가르쳐 주기로 했음을 씀.	1점	2점
	(라)를 바탕으로 단어 시험에서 80점 맞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음을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6 정심은 치매가 악화되어 청문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옥분이 영어를 배워 정심 대신에 청문회에 참석하려는 것이다.

07 (가), (나)를 보면 민재는 우연히 동생 영재가 옥분의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옥분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흔적을 보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민재는 옥분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하게 되었다

08 ㉠은 영재가 제대로 끼니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안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는 부분이며, ㉡은 민재가 수업을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자 기대감을 느끼며 얼굴이 상기되는 부분이다.

09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한국말을 못하는 남동생과 대화하고 싶어서임을 씀.	2점	4점
	자신이 위안부로 겪은 일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임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수필

핵심 체크 p.080
1 ○ 2 X 3 중수필 4 X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81
01 ① 경수필 ② 무형식 ③ 소재 ④ 의미 ⑤ 진술 02 ⑤
03 ㉠, ㉡, ㉢ 04 ② 05 (1) ○ (2) X

02 수필의 '나'는 작가 자신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⑤는 소설에 대한 설명이다.

03 Clinic 오답 강의

㉠ 수필도 글의 일종이므로 어떤 형태의 구성을 갖출 수는 있으나 구성 단계가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기행문, 편지글, 일기 형식 등 구성이 자유롭다. ㉡ 소설과 극 갈래에 해당하는 설명이다.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에서 가치관과 인생관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04 이 글의 글쓴이는 스님에게 빚을 빌려 달라고 했던 자신의 실수가 스님을 웃게 했던 일을 떠올리며, 실수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한숨 돌리게 하는 여백이라는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05 Clinic 오답 강의

(2) 칼럼이나 평론은 중수필에 해당한다. 경수필은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특성을 지닌 신변잡기적인 글로, 개인적인 수필, 일기, 편지 등이 있다.

(1) 관찰아

핵심 포인트 p.082~p.083
01 소외감 02 믿음, '관찰아'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82~p.083
1 ⑤ 2 ④ 3 ② 4 ③ 5 ② 6 ③

- 1 이 글은 글쓴이의 어린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음을 드러내는 수필이다. 이 글에는 특정한 갈등이 나타나지 않는다.
- 2 '나'의 친구들은 장애가 있어 함께 뛰어 놀지 못하는 '나'를 배려하여 여러 가지 역할을 주어 놀이에 어떤 식으로든 함께 하게 했다.

- 3 글쓴이는 어린 시절 친구들이 자신을 배려해 주었기 때문에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음을 깨달았으므로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느꼈을 것이다.
- 4 이 글은 수필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비전문적인 글이다.
- 5 (바)에서는 글쓴이의 친구가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본 한 가수가 겪은 일을 소개하며 '괜찮아'라는 말이 주는 위로와 격려의 의미를 보여 주고 있다.
- 6 ㉠에 이어지는 내용을 볼 때, 글쓴이는 세상에 긍정적인 가치들이 많으며 이러한 세상은 살 만하다고 여기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작품 안눈에 보기 p.084
 ① 역할 ② 소외감 ③ 선의 ④ 용서 ⑤ 부축 ⑥ 희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85~p.086

01 ⑤ 02 ⑤ 03 ② 04 목발 05 예시 답안 '나'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주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마움을 느꼈다.
 06 ① 07 ⑤ 08 ⑤ 09 예시 답안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

- 01 이 글은 수필로 글쓴이의 경험과 이에 따른 깨달음을 전달하는 글이다. 허구적으로 꾸며낸 이야기는 소설이다.
- 02 (나), (다)의 내용을 통해 친구들의 배려로 '나'가 친구들과 잘 어울리며 생활했음을 알 수 있으므로 ⑤의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 03 이 글에서 '나'가 친구들을 싫어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어머니는 장애를 가진 '나'가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할 것을 염려해서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과 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다.
- 04 글쓴이는 목발이 없으면 움직이지 못하며, 이를 통해 '나'가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05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가 소외감을 느낄까 봐 친구들이 배려해 주었음을 깨달았다는 내용을 씀.	2점	3점
	'나'의 정서를 알맞게 씀.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나'는 어린 시절 친구들과의 일, 깨끗 아저씨와의 일, 한 가수의 일화 등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위로와 격려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 07 글쓴이는 자신이 깨끗 장수에게서 '괜찮아'라는 말을 들은 경험과 비슷한 한 가수의 일화를 소개함으로써 '괜찮아'라는 말이 상대방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08 '괜찮아'라는 말을 신중하게 사용하라는 내용은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이 글은 '괜찮아'라는 말이 주는 위로와 격려의 힘을 강조하고 있다.

09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좌절한 사람들에게 하는 말임을 언급함.	1점	3점
	듣는 이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한 말임을 언급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으로 들어왔다

핵심 포인트 p.087~p.088

01 중학교, 자전거 02 막막함
 03 성공, 어른 04 자전거 타기, 도전, 도전

차근차근 내용 체크 p.087~p.088

1 ④ 2 ③ 3 ④ 4 자전거를 배워야 한다. 5 ⑤ 6 ③
 7 ④

- 1 아이들용 자전거를 사 줄 수 있는 부모가 극소수였기 때문에 성인용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 2 글쓴이가 자전거를 배우는 내용은 (라)에서 제시되므로 (라)에서 확인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③ (나)에서 다른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는 모습이 경망스러워 보였다고 했을 뿐 글쓴이가 겪은 일은 아니다.

- 3 (다)에서 글쓴이는 자신이 다치거나 넘어져서 창피함을 당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으며, (라)에서는 거듭되는 실패에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
- 4 중학교 통학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자전거를 배워야 하는 순간이 왔음을 의미한다.
- 5 수필은 꼭 거창하고 대단한 경험만 글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에게 깊은 인상을 준 경험을 선정한다.

- 6 글쓴이는 내리막에서 마지막 시도 끝에 자전거 타기에 성공했고 '어른이 된 기분'을 느끼며 읍내로 내달렸다.
- 7 (사)에서 '근육과 뇌에 새겨진'은 글쓴이가 몸으로 자전거를 배우고, 기억으로 남게 된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근육과 뇌를 움직여 노력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작품 **안눈에 보기** p.089

- ① 실패 ② 내리막 ③ 막막함 ④ 어른 ⑤ 비밀 ⑥ 쓰러짐

차곡차곡 **실력 체크** p.090~p.091

- 01 ② 02 ④ 03 자전거 배우기 04 ③ 05 예시 답안 다른 사람에게 창피한 모습을 보여 주기 싫었기 때문이다. 06 ④ 07 ④ 08 ⑤ 09 예시 답안 실패하더라도 계속해서 도전해야 삶에서 성취를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 01 (가)에서 '나'가 배정받은 중학교가 '아버지와 형이 졸업한 전통 있는 학교'라고 언급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① 초등학교 때는 걸어서 다녔다. ③ 산으로 둘러싸인 평지인 분지에 살았고, 자전거 없는 집이 없는 동네였다. ④ 자전거 타는 것이 싫어서 운동 신경이 둔하다고 핑계를 댄 것이다. ⑤ 큰집에서 농업용 자전거를 빌려서 자전거를 배웠다.

- 02 이 글은 자전거를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을 진솔하게 쓴 수필로, 비판적으로 읽기보다는 글쓴이의 경험과 정서를 중심으로 공감하고 이해하며 읽는 것이 더 적절하다.
- 03 이 글은 글쓴이가 자전거를 배운 경험을 소재로 글쓴이가 깨달은 점을 전달하고 있다.
- 04 글쓴이는 자전거 타기에서 수백 번을 실패했음에도 거듭 도전하고 있다. 따라서 끈질기게 도전하고 노력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05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창피함과 관련하여 씬.	2점	3점
	<조건>에 맞는 문장 형식으로 씬.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글쓴이는 이 글을 통해 자전거를 배우며 자신이 깨달은 점, 즉 시작한 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성취할 수 있다는 삶의 진실을 전하고자 하였다.

- 07 (가): 반복되는 실패를 겪으며 글쓴이는 막막했고,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다. (나): 실패할 경우에 도랑이나 '똥통'에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을 때는 긴장했을 것이다. (다): 마침내 성공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성취감과 뿌듯함, 쾌감을 느끼고 어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Clinic **오답 강의**

② '우월감은 타인과 비교할 때 자신이 뛰어난 느낌을 느끼는 감정이다. 이 글에서 '나'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으므로, 우월감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 08 글쓴이는 자전거 타기에 연이어 실패했음에도 계속 도전하여 성공을 이루었고, 이를 통해 '반복되는 실패에 도전을 멈추면 제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안주하는 삶의 태도'는 이 글에서 '자전거 타기'가 준 의미와 맞지 않다.

09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실패하더라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맥락에서 씬.	2점	3점
	<조건>에 맞는 문장 형식으로 씬.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2

문법

01 품사의 종류와 특성

핵심 체크 p.095~p.097

1 형태, 기능, 의미 2 명사, 수사 3 동사, 형용사 4 활용
5 (1) 동 (2) 형 6 수식어 7 X 8 변하지 않는 9 X 10 X

차근차근 개념 체크

p.098~p.099

01 ① 가변어 ② 이름 ③ 대명사 ④ 부사 ⑤ 감탄사 ⑥ 동사 ⑦ 체언 ⑧ 수식어 ⑨ 관계어 02 (1) 형태 (2) 불변어 (3) 기능, 수식어 (4) 의미 03 형태가 변하는 단어: 동글다, 보다, 튼튼하다, 웃다 /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 나무, 옛, 맵소사, 정말로, 모든 04 (1) 할머니, 음식, 사랑 (2) 모든, 듬뿍 (3) 만든, 담겨, 있다 05 (1) 하나 (2) 나 (3) 별, 사람, 밤, 어둠 06 ㉠: 대명사, ㉡: 명사, ㉢: 수사 / 체언 07 (1) 동사, 대상의 움직임 (2) 형용사, 대상의 상태나 성질 08 동사: ㉠, ㉡ / 형용사: ㉢, ㉣ 09 ④ 10 (1) ○ (2) ○ (3) X (4) X 11 힐끗, 살랑, 우두커니, 나뭇나뭇, 살포시, 가만히, 물끄러미 12 '가', '들' 13 까지, 이, 이야 (이다) 14 (1) ㉠ (2) ㉠ 15 (1) 애 (2) 응 (3) 와, 앓

09 명령형과 청유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동사이다. ④는 동사, 나머지는 모두 형용사이다.

11 부사를 찾아 쓴다.

12 '지호가 몽치를 그리워한다.'에서는 지호가 주어이고, '지호를 몽치가 그리워한다.'에서는 몽치가 주어이다. '지호', '몽치'와 결합하는 조사가 '가'인지 '를'인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13 조사는 다른 말에 붙어서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단어이다.

차근차근 실력 체크

p.100~p.103

01 ④ 02 ④ 03 ② 04 대명사, ㉠: 인형, ㉡: 안방 05 ⑤ 06 둘 07 ② 08 크네(크다), 좋아(좋다) 09 ② 10 ② 11 ㉠: 조심조심, ㉡: 갑자기, ㉢: 곧, ㉣: 가장, ㉤: 전혀 12 ③ 13 예시 답안 조사 '가'는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고, 조사 '를'은 앞말이 목적어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 조사 '가'는 앞말이 동작을 하는 주체임을 나타내고, 조사 '를'은 앞말이 동작의 대상임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14 ④ 15 ④ 16 야 17 ③ 18 ④ 19 ③ 20 ④ 21 ③ 22 (1) 예빠라, 조용하자 (2) 예쁘게 자라라. 조용히 하자. 23 ② 24 ④ 25 예시 답안 밑줄 친 단어들은 모두 부사이다. 부사는 ㉡의 '무척'과 같이 용언을 수식하거나, ㉣의 '아주'와 같이 관형사를 수식하기도 한다. ㉢의 '매우'와 같이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며, ㉤의 '설마'와 같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01 Clinic 오답 강의

① '명사, 대명사, 수사, 형용사, 동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로 총 9개이다. ② 형태, 기능, 의미를 기준으로 분류한다. ⑤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다.

02 '모자', '인기', '몽치', '마음'은 모두 구체적인 대상이나 추상적인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다.

03 ㉠는 뒤에 오는 '인형'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③ 대명사인 ㉠는 체언에 해당하나, 관형사인 ㉡는 수식어에 해당한다. ④ 대명사인 ㉠는 조사와 결합하나 관형사는 조사와 결합하지 않는다. ⑤ ㉠, ㉡ 모두 문장에서 쓰일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05 ⑤의 밑줄 친 단어는 (수)관형사, 나머지는 모두 수사이다. ⑤의 '친'은 뒤에 오는 의존 명사인 '마리'를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06 '선생님의 첫째'에서 '첫째'는 '여러 형제자매 가운데서 제일 순위인 사람'을 뜻하는 명사이다. '일곱 살이다'에서 '일곱'은 의존 명사인 '살'을 수식하는 관형사이다.

07 ②는 모두 부사이다.

Clinic 오답 강의

- '너'는 대명사, '어떤'은 '과일'을 수식하는 관형사, '가장'은 '좋아하니'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오늘'은 명사, '무척'은 '따뜻하구나'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 '어머니'는 감탄사, '벌써'는 '피웠네'를 수식하는 부사이다.

08 <보기>에서 '문장에서 쓰임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단어'에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 '이다'가 있다. 이 중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 부류는 형용사이다. 제시된 상황에서 가변어를 찾으면 '뛰놀다', '크네', '달릴까', '좋아', '가자' 등이 있다. 이 중 '뛰놀다', '달릴까', '가자'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크네'와 '좋아'는 형용사이다.

09 ㉠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인 동사이다. ㉡은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단어인 형용사이다.

10 관형사에 대한 설명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의 '괴연', ③의 '쌩쌩', ④의 '가장', ⑤의 '바짝'은 부사이다. ②의 '새'는 관형사이다.

11 문맥상 빈칸에 들어가기 알맞은 단어를 찾아 써 본다.

12 ㉠~㉤은 모두 부사로 ㉠은 '넘었습니다.' ㉡은 '들리는', ㉢은 '죽는다', ㉣은 '용하다는', ㉤은 '없구나'를 수식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한다. 그러나 같은 수식어이지만 체언만 수식하는 관형사와 달리 부사는 관형사(㉤)

가장 새 책), 부사(㉠ 가장 자주), 문장 전체(㉡ 과연 이 이야기의 결말은 어떻게 될까요?)를 꾸미기도 한다.

1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 '를'이 문장의 뜻에 영향을 미침을 밝힘.	2점	4점
	'가', '를'의 품사가 조사임을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14 ④의 '헌'은 체언 '책'을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이다.

15 ①, ② 세 사람 중 물을 고른 사람이 남호가 유일한 상황이다. 따라서 '더함'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도',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내는 보조사 '마저'를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③, ⑤ 유미와 경미가 아이스크림을 고른 상황에서 '한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 '만'을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16 윗글은 조사 종류 중 격조사에 관한 설명이며, 호격 조사는 앞의 체언이 독립어의 자격을 갖게 하는 조사이다. 위 만화에서 호격 조사는 '유미야', '경미야'에 쓰인 '야'이다.

17 '꽃'은 명사이다. '꽃!', '예쁘다!'와 같이 느낌표가 붙었다고 해서 모두 감탄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의 '네', ②의 '아자', ④의 '여보세요', ⑤의 '아이고'는 모두 감탄사이다.

18 Clinic **오답 강의**

①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이다. ②, ⑤ 감탄사는 독립성이 강하여 문장 내에서 이동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며, 단독으로 문장을 이루기도 한다. ③ '글씨'와 같이 감탄사 '글씨'에 보조사 '요'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보통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다.

19 ① ㉠은 어른이 아이를 부르거나 같은 또래끼리 서로 부를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② ㉡은 다급하거나 놀란 감정을 나타낼 때 쓰는 감탄사이다. ④ ㉢~㉤은 감탄사이나, '유미야'는 '유미(명사)'와 '야(조사)'로 이루어진 말로, 감탄사가 아니다. ⑤ '재미있어(재미있다)'는 형용사이다.

20 관형사는 보조사와 결합하지 않으나, 부사는 보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 ㉡의 '많이도' → '많이'(부사) + '도'(보조사)

Clinic **오답 강의**

① ㉠ 대명사 '저'가 조사 '에게'와 결합하였다. ② ㉡ 관형사 '저'가 체언이자 명사인 '하늘'을 수식한다. ③ ㉢ 부사 '많이'가 동사 '뒀다'를 수식한다. ④ 부사 '아주'가 부사 '빨리'를 수식한다. ⑤ ㉤의 '저'는 관형사, ㉥의 '저'는 대명사이다.

21 • 재원: 동사, 형용사 외에 서술격 조사 '이다'가 활용을 한다.
• 채용: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한다. 부사는 주로 용언을 수식할 뿐만 아니라 관형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22 '예쁘다', '조용하다'는 형용사이므로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청유형 어미 '-자' 등과 결합할 수 없다.

23 '골고루'는 부사이다. ②에 부사는 없다. ①의 '설마', ③의 '너무', ④의 '제일', ⑤의 '함께'는 모두 부사이다.

24 ① 형용사 '예쁘다'의 활용형, ② 부사, ③ 부사, ⑤ 감탄사

25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밑줄 친 단어들에 부사임을 밝힘.	1점	4점
	부사의 역할을 알맞게 서술함.	1점	
	㉠~㉢에서 부사가 수식하는 대상을 바르게 밝힘.	각 0.5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단어의 짜임

● 핵심 체크 p.104~p.106

1 뜻 2 ○ 3 자립, 의존 4 실질, 의존 5 ○ 6 X 7 합성어 8 X 9 새말 10 X 11 다듬은 말 12 ○ 13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07~p.108

01 ① 뜻 ② 어근 ③ 접사 ④ 합성어 ⑤ 파생어 ⑥ 새말 02 아이 / 들 / 이 / 앞 / 마당 / 에서 / 뒤- / 놀- / -았- / -다 03 (1) 아이, 앞, 마당 (2) -들, 이, 에서, 뒤-, 놀-, -았-, -다 04 (1) 아이, 앞, 마당, 뒤-, 놀- (2) -들, 이, 에서, -았-, -다 05 눈물 → 눈/물, 민들레 → 민들레, 주머니 → 주머니, 손바닥 → 손/바닥, 강바람 → 강/바람, 소리꾼 → 소리/꾼, 햇감자 → 햇/감자, 고구마 → 고구마 06 (1) 눈물 (2) 민들레 (3) 주머니 (4) 손바닥 (5) 강바람 (6) 소리꾼 (7) 햇감자 (8) 고구마 07 단일어: 민들레, 주머니, 고구마 / 복합어: 눈물, 손바닥, 강바람, 소리꾼, 햇감자 08 (1) 합성어 (2) 파생어 09 (1) 바닷 (2) 멋쟁이 (3) 햇별 (4) 손수건 (5) 부채질 (6) 꽃나물 10 합성어: 비웃, 햇별, 손수건 / 파생어: 멋쟁이, 부채질, 꽃나물 11 멋쟁이, 부채질 12 합성어: ㉠, ㉡ / 파생어: ㉢, ㉣ 13 (1) ○ (2) X (3) ○ 14 새말 15 (1)-㉠ (2)-㉢ (3)-㉣ (4)-㉠ 16 (1)㉡ (2)㉠, ㉢ (3)㉣, ㉤ 17 (1)-㉠ (2)-㉢ (3)-㉣ (4)-㉡

차근차근 실력 체크 p.109~p.111

01 ④ 02 ① 03 불- 04 ⑤ 05 ④ 06 ㉠과 ㉡는 모두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는 어근 앞에 접두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는 어근 뒤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졌다. 07 ④ 08 ㉠: 단추 ㉡: 잔소리, 귀염둥이, 햇밤 ㉢: 꽃병, 목소리 09 ④ 10 ① 11 ④ 12 ③ 13 ② 14 ㉠: 우리, 형, 매일 ㉡: 밤낮 ㉢: 울보, 심술쟁이 15 ④ 16 ② 17 예시 답안 '하늘', '은', '스스로', '뚝-', '-는-', '자', '를', '뚝-', '-는-', '-다'로 나눌 수 있다. 실질 형태소이면서 자립 형태소인 것은 '하늘', '스스로', '자'이다. 18 ② 19 ㉢ 20 ③ 21 ① 22 예시 답안 '카페에서 공부하는'의 첫 말을 따서 '카공'으로 줄이고, 여기에 '-죽'이라는 접사를 붙여 파생하였다.

01 형태소는 뜻을 가진 작은 말의 단위이다. '아이, 돌, 다리, 건너-'는 실질 형태소, '가, 를, -었-, -다'는 형식 형태소이다.

02 '가위질'은 어근 '가위'에 접사 '-질'이 붙어 만들어진 단어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②는 '멋+-쟁이', ③은 하나의 형태소, ④는 '뛰+-놀- +-다', ⑤는 '꽃+향기'이다.

03 어제(실질, 자립) / 비(실질, 자립) / 바람(실질, 자립) / 이(형식, 의존) / 불-(실질, 의존) / -었-(형식, 의존) / -다(형식, 의존)

04 '김+밥', '주먹+밥'은 각각 자립 형태소끼리 결합한 단어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9개의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이다.(김/밥/과/주먹/밥/을/만들-/~었-/~다) ② 혼자 쓰일 수 없는 의존 형태소는 '과', '을', '만들-', '-었-', '-다'로 5개이다. ③ '만들-'은 실질 형태소이자 의존 형태소이다. ④ 의존 형태소이면서 형식 형태소인 것은 '과', '을', '-었-', '-다'로 4개이다.

05 Clinic 오답 강의

① ㉠~㉢은 복합어, ㉣은 단어이다. ② '강물'은 어근과 어근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합성어, '가득'은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이다. ③ '덧신'의 '덧-', '나무꾼'의 '-꾼'은 접사로, 홀로 쓰이지 못하는 의존 형태소이나 실질 형태소는 아니다. ⑤ '덧신'의 '덧-'은 '거듭된' 또는 '겹쳐 신거나 입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명사인 '신'에 의미를 더해 줄 뿐이지 품사를 바꾸지 않는다.

06 ㉣은 어근에 '군-', '꽃-', '날-'과 같은 접두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두 파생어이다. ㉤은 어근에 '-꾼', '-꾸러기', '-쟁이'와 같은 접미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접미 파생어이다.

07 모두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 소나무 → 솔(ㄹ 탈락) + 나무
- 허리띠 → 허리+띠
- 여닫다 → 열-(ㄹ 탈락) + 닫-
- 책가방 → 책+가방

Clinic 오답 강의

② 형태소의 정의에 해당한다. ③ 단어에 대한 설명이다. ⑤ 접사의 특성에 해당한다.

08 ㉠은 단어, ㉡은 파생어, ㉢은 합성어이다. '잔소리'의 '잔-'은 '가늘고 작은' 또는 '차질구레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 '잔소리'는 파생어이다. '목소리'는 '목(어근)'과 '소리(어근)'의 합성어이다.

09 '멋(어근)+-쟁이(접미사)', '부채(어근)+-질(접미사)', '장난(어근)+-꾸러기(접미사)'

10 '날개'는 어근 '날'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간단한 도구'의 뜻을 더하고 명사를 만드는 접사인 '-개'가 붙어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11 '맨발(명사)'은 접사 '맨-'과 어근 '발'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발'은 원래 명사이므로 품사가 바뀌지 않았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먹보(명사)'는 '먹(동사)'의 '먹-'에 접사 '-보'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② '크기(명사)'는 '크다(형용사)'의 '크-'에 접사 '-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③ '덮개(명사)'는 '덮다(동사)'의 '덮-'에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 ⑤ '가리개(명사)'는 '가리다(동사)'의 '가리-'에 접사 '-개'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2 헛(접사)+손(어근)+-질(접사)

Clinic 오답 강의

- ① 웃(어근)+소매(어근) ② 손(어근)+바닥(어근) ④ 헛-(접사)+과일(어근)
- ⑤ 욕심(어근)+-쟁이(접사)

13 ②는 하나의 어근으로 된 단어, ①, ③, ④, ⑤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거나, 어근에 접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복합어이다.

14 '우리', '형', '매일'은 단어, '밤낮'은 합성어, '올보', '심술쟁이'는 파생어이다.

Clinic 오답 강의

㉢ 올보 → 올-(어근)+-보(접사), 심술쟁이 → 심술(어근)+-쟁이(접사)

15 '첫사랑', '눈빛'은 합성어이고, '장난꾸러기'는 파생어이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눈빛'은 어근 '눈'과 어근 '빛'으로 이루어진 합성어이다.
- ② 어근 '첫'과 어근 '사랑'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 ③ 모두 복합어는 맞지만, '장난꾸러기'는 하나의 어근과 하나의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 ⑤ '장난꾸러기'는 어근 '장난'에 접사 '-꾸러기'가 결합한 파생어이다.

16 ②는 어근 '덮-'과 어근 '밥'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합성어, 나머지는 파생어이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한-(접사)+낮(어근)
- ③ 맨-(접사)+발(어근)
- ④ 톱(어근)+-질(접사)
- ⑤ 올-(어근)+-보(접사)

17 실질 형태소는 '하늘', '스스로', '돕-', '자'이고, 이 중 자립 형태소인 것은 '하늘', '스스로', '자'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형태소 단위로 알맞게 나눔.	1점	4점
실질/자립 형태소인 것을 알맞게 씀.	각 1점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18 Clinic 오답 강의

- ① 새말의 형성에 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단어는 아니다. '붕어빵'의 '붕'에 '역세권'과 같은 말에 사용되는 '세권'이 붙어 만들어진 말로 볼 수도 있고, '붕어빵'의 '붕'에 '세'와 결합한 '붕세'에 '-권'이 붙어 만들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 ③ '연다'를 뜻하는 한자 '득(得)'과 '아이템(item)'의 '템'을 결합하여 만든 말이다.

19 <보기>와 같이 두 단어의 일부를 잘라 결합하여 만든 말은 ‘쫄볶이(쫄면+떡볶이)’이다. ㉠, ㉡은 첫 글자를 따서 만든(떡는 방송, 인터넷 강의) 말이다.

20 ‘나비’, ‘기슴’은 단어들, ‘더듬이’, ‘날개’는 파생어, ‘빨대’, ‘숨구멍’은 합성어이다. ① 복합어의 개수는 4개(더듬이, 날개, 빨대, 숨구멍)이다. ② ‘빨대’는 합성어, ‘날개’는 파생어이다. ③ ‘숨구멍’은 ‘숨(어근)’과 ‘구멍(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이다. ④ ‘기슴’은 단어들이다. ⑤ ‘더듬이’는 ‘더듬-(어근)’에 ‘-이(접사)’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파생어이다.

21 ‘헬멧(helmet), ‘에코백(eco-bag), ‘버킷 리스트(bucket list)’는 모두 영어에서 차용한 새말이다. 각각 ‘안전모’, ‘천 가방’, ‘소망 목록’으로 순화해 쓸 수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②의 ‘그림말’은 ‘이모티콘(emoji)’, ③의 ‘뽕뽕이’는 ‘에어캡(air cap)’, ④의 ‘자동계단’은 ‘에스컬레이터(escalator)’, ⑤의 ‘즉석식품’은 ‘인스턴트 식품(instant 食品)’을 순화한 ‘다듬은 말’이다.

22 ‘카공족’은 단어의 일부를 절단하여 결합하는 혼성의 방식에 접사가 붙어 만들어졌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카페에서 공부하는’의 첫 말을 딴 것임을 밝힘.	2점	4점
접사 ‘-족’을 붙여 파생한 것임을 밝힘.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어휘의양상

● **핵심 체크** p.113

1 세대, 매체 2 X 3 X 4 X 5 X 6 관용적

- 3 전문어는 의미의 다의성이 적고 문맥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 5 친구끼리의 소통 등 사용해도 무방한 맥락에서는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라도 인터넷 언어를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14~p.115

01 ① 전문어 ② 세대 ③ 매체 ④ 공식 ⑤ 존중 02 ㉠ 03 (1) X (2) X (3) O (4) O 04 (1) 일상어 (2) 은어 (3) 전문어 05 (1) 세대 (2) 청소년층 (3) 노년층 06 (1) 잔치 (2) 안성맞춤 (3) 막역지우 07 (1) X (2) O 08 (1) O (2) O (3) X 09 (1) oo(응응), ㅋㅋ(크크), ㄱㅅ(감사) (2) 알개쌈(알겠음) (3) 강추(강력 추천), 꿀잼(꿀처럼 재미 있음), 스포(스포일러) (4) 핏작 10 (나) 11 ㉠, ㉡, ㉢

03 (1) 전문어는 일반 사회에서 별로 쓰지 않는 전문 개념을 표현하는 말로, 다의성이 적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기본 어휘로 쓰이는 일이 적다. (2) 전문어는 문맥에 따라 의미가 변할 가능성이 적다.

04 (2)는 은어와 전문어의 공통점, (3)은 은어와 전문어의 차이점이다. 은어는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사용하는 말을 말한다. 은어는 집단의 비밀을 지켜 이익을 유지하고, 집단 구성원들끼리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은어가 일반 사회에 알려지면 그 단어는 은어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며, 집단 사람들은 그것 대신 새로운 은어를 만들어서 그 비밀을 계속 유지하려는 양상이 나타난다. 예 청과물 시장의 은어: ‘1, 2, 3, 4, 5 ...’ 대신 ‘떡주, 대, 삼패, 을씨, 을씨본...’을 사용함.

06 ‘파티’는 우리말인 ‘잔치’와, ‘취져(취향 저격의 줄임말)’는 ‘생각한 대로 딱 들어맞는다’는 뜻인 ‘안성맞춤’과, ‘찐친(진실하게 친한 친구)’은 ‘서로 거스름이 없는 친구’라는 뜻의 한자성어 ‘막역지우’와 비슷한 뜻으로 쓰였다.

07 (1)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까닭은 할머니와 손녀의 세대가 차이나 서로 사용하는 어휘가 다르기 때문이다.

08 (3) 인터넷 언어는 비대면 상황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대화하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발생했다.

10 <보기>는 학교에 과제를 제출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가)와 같이 새말이나 발음을 변형한 말, 이모티콘 등을 사용한 표현 등은 적절하지 않다. (나)와 같이 격식을 갖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11 ㉠ 청소년층의 어휘와 노년층의 어휘라는 구분은 사용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일 뿐, 특정 세대가 쓰는 언어로 순화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자신과 다른 세대와 의사소통할 때 자기 세대만 쓰는 말을 쓰면 상대방과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쓰는 어휘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차근차근 실력 체크 p.116~p.117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5 예시 답안 (가)는 전문가 간의 대화라서 빠르고 정확한 소통을 위해 전문어를 사용했고, (나)는 일반인인 보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어를 사용하였다. 06 ② 07 ⑤ 08 ② 09 예시 답안 보고서라는 공식적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핵인싸’와 같은 줄임말, ‘갓생 오브 갓생’이라는 신조어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 01 인터넷상이라도 공적인 공간에 글을 쓸 때는 언어 규범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02 위에서 엄마는 '변론', '심리'와 같은 법률 분야 전문어를 사용하고 있다. 엄마가 이러한 전문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려면 말이 길고 복잡해진다. 전문어는 특정 분야에서 전문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로, 전문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율적인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
- 03 밑줄 친 말들은 법률 분야의 전문어이다.
- 04 (가)는 의사끼리 전문어를, (나)는 의사와 보호자가 일상어를 사용하여 대화하는 상황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① 환자의 상태를 설명하려는 대화 목적은 동일하나 대화의 상대는 각각 의사와 보호자로 다르다.
 ④ 전문어를 사용한 ㉠에 비해 일상어를 사용한 ㉡의 내용이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닌 사람에게는 ㉡과 같이 일상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도 ㉠과 같이 말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05 (가), (나) 모두 말하는 이가 의사이나 (가)는 듣는 이가 간호사이고 (나)는 듣는 이가 환자의 보호자라서 어휘에 차이가 생겼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가)는 빠르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 (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어휘를 사용했음을 알맞게 서술함.	2점	3점
(가)에서는 전문어를 사용했음을 언급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 06 '찐맛집', '꿀팁' 등은 청소년층뿐만 아니라 청년, 중장년층도 인터넷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다. (나)의 '예지 아빠'의 댓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07 인터넷 매체라 할지라도 사회 관계망 서비스가 아니라 학교 누리집과 같이 공적인 온라인 공간에 글을 쓴다면 (나)와 같은 줄임말이나 발음을 변형한 말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08 (가)는 청소년층, (나)는 노년층이 사용하는 어휘가 나타난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노년층의 어휘에서 나타나는 특성이다. ㉠ 처서, 그믐 등 ③ 노년층이 언어문화를 수용할 때 보이는 태도이다. ④ 분야에 따른 어휘 종류인 전문어의 특성이다. (가), (나)는 세대에 따른 어휘 구분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문제가 되는 표현 2개를 포함해서 서술함.	각 1점	3점
공식적인 상황 맥락을 고려하지 못한 어휘임을 밝힘.	1점	
어법에 맞게 표현하지 못함.	-1점	

3 읽기

01 요약하며 읽기

● **핵심 체크** p.121

- 1 핵심적인 2 X 3 일반화 4 목적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22

- 01 ① 구조 ② 목적 ③ 선택 ④ 삭제 ⑤ 상위 02 ③ 03 ⑤
 04 동생이 엄마의 손을 잡고 학교에 가고 있다. 05 중세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불은 인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02 요약문을 쓸 때에는 읽기 목적에 맞게 중심 내용을 위주로 요약한다. 자기의 읽기 목적에 맞지 않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포함할 필요가 없다.
- 03 중심 문장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해당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중심 문장을 새로 만들었으므로 재구성에 해당한다.
- 04 반복되는 '동생이'를 삭제하고 요약한다.
- 05 인류사에서 불이 한 역할에 관해 시간 순서에 따라 내용을 전개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건>에 맞는 문장을 쓴다.

준호와 함께하는 요약하며 읽기

준호의 읽기 과정 01~08 p.123~p.126

- 01 종자 보관소, 삭제, 삭제 02 현재, 미래, 선택 04 공통점, 외부 충격 05 야생 식물, 야생 식물 종자 06 중요 자원, 삭제 08 그러므로, 결론, 선택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23~p.126

- 1 개념, 발표 2 종자 보관소 3 ③ 4 ④ 5 ③ 6 ④, ⑤ 7 ⑤ 8 야생 식물 9 ④ 10 ㉠ 11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서는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 12 ③ 13 [A]: (마), (바), (사) [B]: (아) 14 ㉡: 앞으로 중요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큰 야생 식물의 종자를 보관하고 있으며,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 ⑥: 종자 보관소가 열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한다

- 1 준호는 과학 시간에 종자 보관소의 개념과 특징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글을 읽기로 하였다.
- 2 '종자 보관소, 우리의 미래를 지켜 주는 열쇠'라는 글의 제목, (가), (나)에서 '종자 보관소'라는 말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 3 준호는 중심 내용을 담고 있는 마지막 문장을 선택한 뒤, 세부적인 내용과 구체적 예시를 드러내는 부분을 삭제하여 (가)를 요약하였다.
- 4 (나)는 종자 은행의 특징과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반면에'라는 연결어를 사용해 대조하고 있다.
- 5 '종자 보관소는 전 세계에서 단 두 곳밖에 없다.'라는 내용, 마지막 문장 중 중요한 내용을 선택해서 중심 문장을 만들었다.
- 6 ㉠, ㉡ 모두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고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는 ㉠에, ㉢은 ㉡에만 해당하는 설명이다.
- 7 (라)는 중심 내용이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없다. <보기>는 (라)에 나타난 노르웨이와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9 한국의 종자 보관소는 야생에서 직접 수집한 종자 외에도 다른 나라나 기관에서 맡긴 야생 종자를 함께 보관하고 있다.
- 10 한국 종자 보관소가 야생 식물 종자를 저장하는 까닭을 설명하면서, 독감 치료제의 재료인 야생 식물 껍질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야생 식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독감 치료제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 11 중심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문장은 문단의 첫 문장이다. 글자 수에 맞도록 불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여 중심 문장을 만들어 본다.
- 12 (사) 문단에는 선택, 삭제하기 방법이, (아) 문단에는 선택하기 방법이 사용되었다.
- 13 (가)~(아)의 문단별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 구조도를 완성해 본다.
- 14 (자)에서 완성한 내용 구조도를 참고할 때, ㉢에는 (마), (바), (사)의 문단별 요약을 바탕으로 한국 종자 보관소의 특징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아)의 요약을 바탕으로 종자 보관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내용 **안눈에 보기** p.127

- ① 현재 ② 미래 ③ 두 곳 ④ 야생 식물 종자 ⑤ 중요 자원 ⑥ 종자 보관소 ⑦ 미래 ⑧ 안전 ⑨ 야생 식물 종자 ⑩ 연구 ⑪ 종자 보관소 ⑫ 미래 ⑬ 안전 ⑭ 야생 식물 종자

치극차극 실력 체크 p.128~p.129

- 01 ③ 02 일반화 / (다) 03 ③ 04 ④ 05 예시 답안 한국의 종자 보관소에서는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도 하고 있다. 06 ③ 07 ④ 08 ⑤ 09 예시 답안 종자 보관소는 외부 충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설계되었고, 종자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한다.

- 01 (가)는 종자 보관소의 개념, (나)는 종자 보관소의 특징, (다), (라)는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특징, (마)는 종자 보관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당부이므로, (가)/(나)/(다)(라)/(마)로 묶는 것이 적절하다.
- 02 <보기>에서 사용된 요약하기 방법은 일반화이다. (다)에 제시된 '광릉요강꽃, 세뽕투구꽃, 구상 나무'는 '야생 식물'로 일반화할 수 있다.
- 03 (나)는 종자 보관소와 종자 은행의 차이점을 '반면에'라는 접속어를 중심으로 내용을 전개하고 있으므로 두 대상의 서로 다른 특징을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한다.
- 04 종자 보관소는 식물 자원의 멸종에 대비한 저장 시설로 '금고'와 같다고 (나)에서 제시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은행'과 같은 곳은 '종자 은행'이다.

05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선택과 삭제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알맞게 요약함.	3점	3점
	'선택'과 '삭제' 중 하나만 사용하여 요약함.	-1점	
	'~다.' 형태의 한 문장으로 쓰지 않거나, 표현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림.	-1점	

- 06 (라)에서 야생에서 수집한 종자와 함께 다른 나라와 기관에서 맡긴 야생 식물 종자를 함께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 07 (마)는 야생 식물 연구의 필요성이 아니라, 한국 종자 보관소가 야생 식물에 관한 연구를 한다는 특징이 있음을 말하는 문단이다.
- 08 글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종자 보관소의 개념과 만들어진 까닭이 나온 (가), 한국의 종자 보관소가 안전하게 설계되었음을 설명한 (다), 그리고 한국의 종자 보관소의 특징을 설명한 (라), (마)의 내용이 필요할 것이다. (바)는 종자 보관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내용의 문단으로, <보기>의 읽기 목적과 관련성이 가장 떨어진다.

09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안전', '최적의 상태'라는 공통점이 잘 드러나도록 내용을 재구성함.	3점	3점
	30자 내외의 한 문장으로 쓰지 못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추론하며 읽기

● 핵심 체크

p.130

1 추론 2 X 3 의미 4 ○

차근차근 개념 체크

p.131

01 ① 경험 ② 문장 ③ 글쓴이 02 ⑤ 03 ⑤ 04 배경지식, 정보 05 단어

- 02 추론하며 글을 읽으면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난 내용 외에도 글쓴이가 생략한 내용, 글에 나타나지 않은 글쓴이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할 수 있어 글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03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글쓴이의 관점’은 추론하며 읽기를 하며 파악해야 할 대상이지, 추론하며 읽을 때 활용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니다.
- 04 추론하며 글을 읽을 때에는 독자의 경험과 배경지식, 글에 나타난 여러 정보(단어와 문장의 의미, 제목 등)를 활용한다.
- 05 희이는 글쓴이가 ‘루틴’을 설명하면서 긍정적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했음을 근거로 하여 글쓴이가 루틴에 관해 긍정적인 관점을 지녔다고 추론하였다.

추로니와 함께하는 추론하며 읽기

추로니의 읽기 과정 01~06

p.132~p.136

01 플라스틱 쓰레기 02 그림, 과정 04 부정, 심각 05 예 06 배경지식

핵심 포인트

p.132~p.136

01 쓰레기 섬, 인용, 실감 02 한반도, 그림, 과정
03 많다, 심각, 심각성 04 생태계, 배경지식
05 유입, 심각성, 설득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32~p.136

1 ① 2 ① 3 ④ 4 ④ 5 ㉔: 과정, ⑥: 크기 6 ③ 7 ③
8 ② 9 ② 10 ④ 11 ⑤ 12 배경지식 13 ③ 14 ④

- 1 (가)는 서론으로, 찰스 무어가 태평양에서 발견한 거대한 플라스틱 섬을 소개하며 독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Clinic 오답 강의

②, ③은 결론, ④, ⑤는 본문에서 제시될 내용이다.

- 2 찰스 무어의 말을 인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 3 ㉔은 찰스 무어가 쓰레기 섬을 발견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실제로 한 말이다. 이를 그대로 인용한 것은 쓰레기가 섬을 이룬 충격적인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독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자 한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 4 (다)에서 섬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이 작은 플라스틱이어서 인공위성으로 관찰할 수 없다고 했다.
- 5 (나)에는 태평양 쓰레기 섬이 만들어진 과정과 위치를, (다)에는 추정되는 쓰레기 섬의 크기를 제시하고 있다.
- 6 제시된 그림을 통해 쓰레기 섬의 대략의 크기와 위치, 북태평양 환류의 영향으로 생겨난 점 등은 추론할 수 있으나 실제 쓰레기 섬의 모습은 알 수 없다.
- 7 (바)에서 ‘플라스틱은 자연에 존재하지 않았던 물질’이라고 하였다. 즉, 인간이 발명해 낸 물질이다.
- 8 ①은 ‘범사(凡事): 모든 일’, ③은 ‘범접(犯接): 함부로 가까이 범하여 접촉함.’, ④는 ‘범법(犯法): 법을 어김.’, ⑤는 ‘범용(汎用): 널리 여러 방면이나 용도로 쓰는 일’이 들어가기 적절하다.
- 9 ‘골칫거리’,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구를 점령했다.’, ‘육지의 배설물’ 등의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들로, 글쓴이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 10 (사)~(차)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말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관점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11 (차)에서 미세 플라스틱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기는 하나, 일반적인 과학자들이 체내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건강을 크게 해칠 것이라고 말한다고 하였다. 이로 볼 때, ⑤의 추론은 적절하지 않다.
- 12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떠올리며 글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
- 13 (타)에서 ‘플라스틱은 이미 인간의 삶에 깊고 넓게 들어와 있으므로 플라스틱을 아예 쓰지 않을 수는 없다.’라고 했으므로 ③은 글쓴이의 주장과 거리가 멀다.

14 글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심각성을 알려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도록 설득하고자 이 글을 썼을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④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이다.

내용 **안눈에 보기** p.137
 ① 단어 ② 배경지식 ③ 부정적 ④ 심각성 ⑤ 설득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38~p.139

01 ⑤ 02 ㉔: (나), ㉕: (다) 03 ⑤ 04 예시 답안 바다로 흘러드는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사람들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어쩔 수 없이 생긴 플라스틱 쓰레기는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자고 설득하려는 것이다. 05 ② 06 ① 07 ⑤ 08 예시 답안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 플라스틱이 생태계 먹이 사슬의 일부가 되었다는 내용을 더 실감 나게 전달하기 위해서이다.

- 01 이 글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쌓이는 상황과 이것이 주는 피해를 제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 02 ㉔: (나)의 '1950년에 150만 톤이었던~250배로 들었다.', '2020년까지~유입되었다.'에서 구체적 수치를 들어 해양 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㉕: (다)에서 코스타리카에서 발견된 바다거북이 바다로 흘러든 쓰레기로 직접 피해를 입은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다.
- 03 ㉑~㉔의 단어는 다소 부정적인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표현을 쓴 것으로 보아 글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들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 04 (라)를 통해 글쓴이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고, 잘 관리하여 바다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 (다)에서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했음을 서술함.	2점	4점
플라스틱 쓰레기의 바다 유입을 막자고 설득하고 있음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5 이 글은 (가), (나)에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드는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고, (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생태계와 생명체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한 뒤, (라)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촉구하는 흐름을 보인다. 이를 고려할 때, (가)에서 쓰레기 섬을 처음 목도한 찰스 무어의 글을 인용한 것은 그 충격적인 상황을 실감 나게 전달하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에 대한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일 것이라 추론할 수 있다.

06 (나)의 '범람'이라는 표현과 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 글쓴이는 환경과 생태계를 해치는 플라스틱에 대해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 '놀림거리'는 이러한 맥락과 가장 거리가 먼 표현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④ '몹시 애를 태우거나 성가시게 구는 사람'을 뜻하는 '애물'을 낮잡아 이르는 말.

- 07 미세 플라스틱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는 것은 독자의 배경 지식이라는 글 속 정보 이외의 요소를 활용하여 추론한 것이다.
- 08 독자 입장에서 그림을 삽입했을 때와 삽입하지 않았을 때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이 글의 글쓴이가 그림을 삽입한 의도를 추론하여 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그림 삽입의 효과를 적절하게 씀.	3점	3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4 듣기·말하기/쓰기/매체

01 토의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42

1 ② 2 ①

1 토의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자들이 의견을 모으는 의사소통 과정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④는 협상, ⑤는 토론의 목적에 해당한다.

2 토의에서 사회자는 토의 절차에 따라 토의를 진행하는 역할이 핵심이다. 토의가 시작할 때 토의 주제와 목적, 토의자를 소개하고 토의가 진행되는 중간에는 발언권을 주고 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요약 정리하여 마무리하는 역할을 한다.

Clinic 오답 강의

②와 ⑤는 토의자, ③은 청중의 역할이며, ④는 토론을 할 때 참가자의 역할에 해당한다.

핵심 포인트 p.143~p.146

- 01 마을 축제, 절차, 발언 기회 02 사진전, 떡볶이, 풍선 아트
- 03 근거, 사회자 04 협력적
- 05 질문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43~p.146

1 사회자 2 ② 3 ④ 4 ② 5 한재현 6 ③ 7 ⑤ 8 ①
9 ④ 10 풍선 아트 체험장을 운영하면서, 체험장 한쪽에 사진을 전시한다. 11 ② 12 ⑤

1 제시된 글은 토의에서 사회자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다. 한편 (나)의 윤이음, 김나영과 같은 토의자는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의견과 근거를 제시하고, 다른 토의자들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2 (가)에서 토의의 논제로 “마을 축제에서 무엇을 운영할까?”가 제시되었다. 이로 볼 때, 이 토의는 마을 축제에서 어떤 행사를 운영할지 기획하고자 열린 것임을 알 수 있다.

3 김나영은 축제에서 떡볶이를 만들어 팔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신이 제안한 방안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으며,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기부도 할 수 있음을 들고 있다.

4 “마을 축제에서 무엇을 운영할까?”라는 논제에 대한 의견으로 윤이음은 ④, ⑤를, 김나영은 ①을, 한재현은 ③을 제안하였다.

5 한재현은 김나영의 발언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말을 끊고 발언을 하였다. 또한 김나영의 의견을 ‘말이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며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6 (다), (라)에서 한재현이 김나영의 의견(떡볶이 판매)이 지닌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김나영은 (라)에서 윤이음이 제기한 문제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로 수용하였다.

7 예의에 어긋나는 태도를 보인 토의자에게 바람직한 토의 자세를 언급하였다. 이처럼 토의 사회자는 편안하고 협조적인 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8 김나영은 (나)의 한재현의 의견을 듣고, 떡볶이 판매는 불을 켜야 하기에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자기 의견을 수정하였다.

9 (마)에서 토의자들은 앞서 제기된 의견들이 지닌 문제를 검토하고,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는 합리적인 과정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하였다.

11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로, 청중들이 질문하고 토의자가 이에 답변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토의에서 미처 논의하지 못한 점을 점검하고, 정리된 해결 방안을 보완할 수 있다.

12 (사)에서 사회자는 다음 3차 회의에서 오늘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마을 축제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따라서 이미 결정한 사진전 행사를 대신할 행사를 찾는 것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을 것이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47

- ① 마을 축제 ② 관심 ③ 사진전 ④ 주제 ⑤ 근거 ⑥ 해결 방안

차근차근 실력 체크 p.148~p.149

- 01 ④ 02 ⑤ 03 ② 04 예시 답안 떡볶이를 만들어 팔자. / 풍선 아트 체험장을 운영하자. 05 ② 06 ③ 07 ②
- 08 예시 답안 한재현,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고 ‘말이 안 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01 (가)는 토의의 처음 부분, (나)는 각 토의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부분으로 청중과의 질의응답 단계는 이 글에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청중의 질문에 답변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은 토의자가 할 일이지, 사회자가 할 역할이 아니다.

02 윤이음은 학교를 소개하는 사진전을 열자는 의견의 근거로 어른들에게 추억을 떠올리는 기회가 되고(①), 어린아이들이 학

교를 미리 살펴볼 수 있음(②)을 들었다. 또한 학생들이 사진을 직접 해설하면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어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③, ④)이라고 하였다.

03 토의는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말하기이다. 따라서 학급에서는 토의를 통해 학급 공동의 문제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하여 모두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토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신속하게 의사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04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나)의 김나영의 의견을 적절하게 정리함.	2점	4점
	(나)의 한재현의 의견을 적절하게 정리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5 토의의 주제는 찬반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될 만한 것이어야 한다. ②는 토론의 논제로 적절하다.

06 ㉠은 '떡볶이 판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발언이다. 어른들의 떡볶이보다 맛이 없을 것이 분명하며, 불을 사용하여 위험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대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07 청중은 토의의 전 과정을 경청하며 토의자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가는 역할을 해야 한다. 청중과 토의자가 질의응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앞서 마련한 해결 방안을 보완할 수 있다.

08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학생 이름을 정확히 밝혀 씀.	1점	3점
	이유를 적절하게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2 추론하며 듣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0

1 ③ 2 ⑤

1 내가 어떤 언어적 표현을 사용했는지는 상대방의 의도를 추론하는 근거로 적절하지 않다.

2 담화 맥락이란 담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배경을 의미한다. 맥락을 형성하는 요소에 따라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구분되며, 이와 같은 맥락에 따라 같은 말도 전달하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핵심 포인트

p.152

01 행복, 태도 / 태도, 행복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51~p.152

1 4, 4, 20 2 ④ 3 은주가 약속 시간에 늦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4 청소년, 행복 5 ⑤ 6 결과를 대하는 태도 7 ④

3 성재와 은주는 4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은주가 20분이나 늦은 상황이다. 뒤에 이어지는 성재의 말과 2에서 파악한 성재의 표정 등으로 볼 때, ①은 약속 시간에 늦은 은주의 행동을 지적하는 의도로 한 말이다.

4 강연의 제목을 통해 이 강연이 청소년에게 행복을 주제로 하여 정보를 전달하거나 설득하려는 내용일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5 금메달을 딴 선수의 만족도와 다른 선수들의 만족도를 비교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이 강연에서는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6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기뻐하는 사례를 들어, 행복감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7 동메달을 딴 선수가 더 기뻐하는 이유는 강연자가 강연 내용으로 제시하였으며, (나)에서 성재가 이에 관해 추론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53

① 짐작 ② 맥락 ③ 4시 20분 ④ 지적 ⑤ 태도 ⑥ 청소년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54

01 ① **02** ④ **03** ④ **04** 예시 답안 약속 시간에 늦은 은주를 나무라는 의도일 것이다. 약속 시간이 4시인데 은주가 4시 20분에 약속 장소에 나타난 상황, 그리고 성재의 부드럽지 않은 말투, 팔짱 낀 태도, 화가 난 듯한 표정 등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01 (가)의 3문단에서 '선수들의 만족감을 결정하는 것은 메달의 색이 아니었습니다.'라고 한 데에서 ①이 알맞지 않음을 알 수 있다.

02 (나)의 남학생은 강연 제목이 ‘청소년을 위한 행복 특강’이라는 점에서 이 강연이 청소년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알려 주는 것임을 추론했다. 또한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을 설명한 뒤, 결과를 대하는 서로 다른 태도를 강조하며 마무리 짓는 강의 내용을 언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연자의 의도를 추론했을 때 흐름에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03 강연자는 동메달을 딴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기뻐하는 이유는 결과보다는 결과를 대하는 태도가 더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태도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로 볼 때,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이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숨겨진 의도를 알맞게 서술함.	1점	3점
추론을 뒷받침할 만한 상황 맥락을 서술함.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3 정보를 전달하는 글 쓰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55

1 ⑤ 2 ②

- 1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를 활용할 방법은 ‘내용 조직하기’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 2 한 가지 매체에서만 정보를 수집하면 그 매체의 특성에 따라 편중된 정보만을 얻게 되거나 정보의 양이나 정확성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해 더욱 정확하고 풍부한 자료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핵심 포인트 p.156~p.158

- | | |
|------------------|---------------------------|
| 01 정보, 주제 | 02 모자, 역할, 예의, 단발령 |
| 03 주제 | 04 출처 |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56~p.158

- 1 ⑤ 2 ③ 3 예상 독자의 수준을 고려할 때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독자인 친구들이 아는 내용이라 굳이 소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 ④ 5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과 종류’라는)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6 ② 7 조선 시대 모자의 종류 8 ⑤ 9 ② 10 (글의 첫 문단에 시각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좀 더 끌 수 있을 것이다.

1 현지는 글을 쓰기 전에 매체, 주제, 목적, 예상 독자를 고려하였다.

2 현지는 예상 독자의 배경지식(㉠), 흥미(㉡, ㉢), 주제와의 관련성(㉣, ㉤), 정보 전달이라는 글의 목적을 고려해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하고 있다.

4 다양한 매체에서 자료를 수집하면 주제와 관련된 여러 정보들을 다양하게 찾을 수 있으므로 글의 내용이 더욱 풍성해진다. ④는 쓰기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이 작성한 자료를 글에 활용할 때에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5 ‘조선 시대 모자의 종류를 알 수 있는 자료야. 글을 쓸 때 꼭 필요하겠어.’로 볼 때, 글의 주제와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6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은 <자료 3>과 <자료 5>를 통합해서~’라고 하였으므로, <자료 3>과 <자료 5>를 바탕으로 모자의 역할을 정리해 본다.

Clinic 오답 강의

① 모자의 역할은 맞으나, ‘중간 1’ 부분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다. ③ <자료 3>에 언급된 모자의 역할은 맞으나, 모자로 신분을 나타내었다는 내용의 <자료 5>와 통합하여 ㉠의 내용을 구성한다고 하였으므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다.

7 ‘자료 활용 계획’의 네 번째 항목에서 ‘<자료 6>에 나와 있는 두 모자를 대조하며 모자의 종류를 소개해야겠어.’라고 한 것으로 볼 때, 현지가 갖과 패랭이를 대조하여 조선 시대 모자의 종류를 설명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8 이 글은 처음(1문단)–중간(2~4문단)–끝(5문단)으로 구성되었다. 중간 2, 3문단에서 모자의 역할을, 4문단에서 모자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으므로 ⑤는 알맞지 않은 진술이다.

9 2, 3문단에서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이 제시되는데, ②는 이 부분에서 찾을 수 없는 내용이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59

- ① 독자 ② 목적 ③ 출처 ④ 독자 ⑤ 출처 ⑥ 이해

차곡차곡 실력 체크 p.160

- 01 ⑤ 02 ⑤ 03 ④ 04 예시답안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가 있을 텐데 참고 자료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글의 끝부분에 글을 쓸 때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모두 밝혀 적는다.

- 01 이 글은 조선 시대 모자의 역할과 종류를 설명하고, 오늘날 조선의 모자를 쓰지 않게 된 역사적 이유를 언급하며 마무리 된다.
- 02 수집한 모든 자료를 글에 활용하기는 어려우며 그렇게 하여 좋은 글을 쓰기도 힘들다. 주제와의 관련성, 신뢰성, 독자의 수준 등을 고려해 자료의 중요도를 판단하여 글에 어떤 자료를 쓸지 선정해야 한다.
- 03 <보기>는 도표를 활용하여 (라)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해 전달함으로써 독자가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여 이해를 돕는 효과를 준다.

Clinic **오답 강의**

①은 주장하는 글, ②는 정서를 표현하는 글과 관련된 설명이다. ③ 것과 पै랭이라는 두 모자 종류를 비교하고 있을 뿐, 시간에 따른 대상의 변화를 나타낸 자료가 아니다. ⑤ (라)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한 것으로, 글에 없는 정보를 추가한 것이 아니다.

채점 요소	배점	총점
문제점을 알맞게 서술함.	2점	3점
수정 방안을 알맞게 서술함.	1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주장하는 글 쓰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p.161

1 ② 2 ④

- 1 ㉠ 주장하는 글은 주장과 근거의 논리적 관계에 따른 글의 짜임이 매우 체계적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 주장하는 글의 목적은 독자를 설득하는 것이다.
- 2 근거는 반드시 주장과 관련이 있고,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

핵심 포인트

p.162~p.165

- 01 청소년, 수면, 근거 02 부족, 의미, 효과, 삭제
- 03 짧음, 건강, 수면, 성적, 매체 04 근거, 조사
- 05 독자, 충분한 수면, 인상

● **차근차근 내용 체크** p.162~p.166

- 1 ㉠: 수면, ㉡: 학교 친구들(청소년) 2 ⑤ 3 ③, ④ 4 ① 5 ㉢
- 6 ⑤ 7 ④ 8 ⑤ 9 출처를 밝힌다. 10 ④ 11 수면 시간
- 12 ③

- 1 (가)를 바탕으로 하여 파악해 본다.
- 2 많은 사람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주관적인 근거는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
- 3 ㉠, ㉡은 수면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낮잠'을 떠올린 내용이다. 이는 '청소년 시기에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라는 수하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
- 4 ㉠에서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평균 수면 시간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사문의 표제와 내용으로 볼 때 중심 내용은 '다른 나라 국민들의 평균 수면 시간보다 한국 청소년의 평균 수면 시간이 짧다.'라고 보는 것이 알맞다.
- 5 ㉢은 청소년들의 평균 이용 시간이 수면 시간보다 더 길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데, 이는 청소년이 충분한 시간만큼 잠을 자야 한다는 수하의 주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 6 근거를 마련할 때는 자료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검토하고 주장에 부합하는지 타당성을 판단해야 한다. ⑤는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 7 문제 상황은 서론에서 드러내어 독자가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나의 주장에 더 관심을 갖고 글을 읽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8 ⑤는 주장하는 글을 쓸 때에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만한 전락이기는 하나, (라)에서 수하가 생각한 전락은 아니다.
- 9 글에 조사 결과나 연구 자료 등을 인용할 때는 자료의 출처를 밝히는 것이 쓰기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 10 2문단에서 우리나라 청소년이 수면이 부족한 실태를 제시하였으나, 그 원인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①, ② 2문단 ③ 3문단 ⑤ 4문단
- 11 이 글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세 가지 구체적 근거로 뒷받침하며 전개하고 있다. 글쓴이는 2문단의 첫 문장에서 '충분한 수면'이 구체적으로 충분한 수면 '시간'을 의미함을 정의하였다.
- 12 주장과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적절하게 제시하면 독자의 공감을 얻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이것이 주장하는 글을 평가할 때 꼭 고려할 요소는 아니다.

● **내용 한눈에 보기** p.166

- ① 문제 ② 목적 ③ 주장 ④ 짧음 ⑤ 건강 ⑥ 수면 ⑦ 주장 ⑧ 타당성 ⑨ 독자 ⑩ 인상 ⑪ 주장

01 ⑤ 02 ③ 03 예시 답안 ㉠: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 ㉡: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잠을 충분히 자야 한다. 04 ② 05 조사 결과, 책, 실험 결과 06 ⑤ 07 예시 답안 <보기>는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 시간이 길다는 내용으로,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활용하지 않을 것이다.

01 주장하는 글을 쓸 때 단정적 표현을 쓰면 한쪽으로 치우친 느낌을 주어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모호한 표현은 주장하는 바를 독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못해 글의 설득력을 떨어뜨리므로 피한다.

02 (다)는 수면 부족이 가져오는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제시하였을 뿐, 이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03	채점 요소	배점	총점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씀.	2점	4점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씀.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4 이 글은 청소년에게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글이다. 우리나라 성인의 평균 수면 시간에 관해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05 (나)에서는 조사 결과, (다)에서는 책, (라)에서는 실험 결과를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주장을 뒷받침하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하면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06 본론에 해당하는 문단은 (나)~(라)이다. (나)는 수면 부족 실태를 지적하고, (다)는 건강 면, (라)는 학업 면에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한 이유를 제시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①, ② 결론인 (마)에 나타난다. ③, ④ 서론인 (가)에 나타난다.

07	채점 요소	배점	총점
	활용 여부와 그 이유를 바르게 서술함.	3점	3점
	활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그 이유가 적절하지 않음.	2점	
	문장이 어색하거나 맞춤법이 틀린 것이 있음.	-1점	

05 매체로 소통하기

● 바로바로 개념 체크

1 ① 2 ③

1 상호 작용적 매체는 누리집,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과 같이 여러 사람이 동시에 쌍방향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는 매체이다.

Clinic 오답 강의

③ 상호 작용적 매체는 다양한 소통 맥락에서 사용할 수 있으므로, 공적인 상황에서는 격식을 차린 표현을, 사적인 상황이면 친근한 표현을 알맞게 사용하면 된다. ④, ⑤ 다양한 소통 맥락에서 사용되므로 '사적인 대화에서만 사용된다'든가, '공적인 목적의 소통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2 누리집, 사회 관계망 서비스, 온라인 대화와 같은 상호 작용적 매체로 소통할 때에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소통할 시간과 공간을 꼭 협의하지 않더라도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01 정보, 누리집, 공

02 자유, 반말, 이모티콘

● 차근차근 내용 체크

1 ③ 2 ⑤ 3 ④ 4 공적인 성격의 소통 공간에서 사적인 내용을 썼으며 반말을 쓰는 등 격식을 갖추지 않은 언어 표현을 사용하였다. 5 ② 6 ⑤ 7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되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개인 정보를 드러내었다.

1 박물관의 위치와 교통편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Clinic 오답 강의

- ① 1학년 자율 동아리 '그림의 숲'
- ② 2000년 6월 8일 오전 10시~오후 1시 / ○○ 애니메이션박물관
- ④ 7,000원
- ⑤ 은결중학교 학생 10명

2 학교 누리집은 공적인 성격이 강한 곳이므로 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글이라도 존댓말을 사용해서 격식 있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3 학교 누리집은 상호 작용적 매체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원하는 정보를 얻거나 공유할 수 있다는 특징을 지닌다.

4 이 댓글은 학교 누리집이라는 공적인 소통 맥락을 고려하지 못하여 바람직하지 못하다. 나아가 이 댓글을 조하는 학생이 읽는다면 공적인 공간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목된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으며, 이는 예전 학생과의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매체를 활용해 의사소통할 때에는 소통 맥락을 고려해야 자신의 의사소통 목적을 원만하게 이룰 수 있음에 유의한다.

5 (나)의 댓글 중 세 번째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올린 게시물은 (설정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개방되기 때문에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과도 소통이 이루어진다.

6 (가)에서는 공적인 성격의 소통임을 고려하여 친구 사이에도 존댓말을 쓴 것이고, (나)는 개인 SNS에서 소통하는 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편하게 반말을 쓴 것이다.

7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서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면 악용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시

작품명	작가	교과서 수록 부분
3월	오규원	천재(노) 1학기 1단원 본문 천재(정) 1학기 1단원 본문 비상(박현) 1학기 1단원 본문 동아 1학기 1단원 본문
거꾸로 말했다	장철문	동아 1학기 4단원 활동
길	김중상	미래엔(신) 1학기 1단원 본문
나무	윤동주	미래엔(민) 1학기 1단원 활동
돌담장의 안녕	김봉근	해냄 1학기 1단원 활동
딱지	이준관	천재(노) 2학기 1단원 본문
맨드라미	김선우	해냄 1학기 1단원 본문
반딧불	윤동주	미래엔(민) 1학기 1단원 활동
별밤에	나태주	창비 1학기 1단원 본문
봄날 아침	최일환	비상(박영) 1학기 1단원 본문
비스듬히	정현중	비상(박현) 2학기 1단원 활동
사랑하는 별 하나	이상선	미래엔(신) 1학기 1단원 본문 비상(박현) 1학기 1단원 본문
새로운 길	윤동주	동아 1학기 1단원 본문 비상(박영) 1학기 1단원 본문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저녁	복효근	천재(정) 1학기 1단원 활동
연탄 한 장	안도현	해냄 1학기 1단원 본문
우리 둘이	김준현	지학사 1학기 1단원 본문
유성	오세영	지학사 1학기 1단원 활동
자물쇠가 철컹 열리는 순간	조재도	지학사 2학기 1단원 활동
큰 나무	조재도	천재(정) 1학기 4단원 활동
하늘의 별 따기	나희덕	천재(노) 1학기 1단원 본문
햇비	윤동주	미래엔(신) 1학기 1단원 활동
후후후	성미정	미래엔(민) 1학기 1단원 본문

시조

작품명	작가	교과서 수록 부분
오우가	윤선도	천재(노) 1학기 1단원 활동 천재(정) 1학기 1단원 본문 지학사 1학기 1단원 본문 해냄 1학기 1단원 활동
뫼비우스 가려 꺾어	홍랑	비상(박현) 1학기 1단원 활동



노랫말

작품명	작가	교과서 수록 부분
나는 나비	박태희 작사	해냄 1학기 1단원 활동
러브 블러썸	김이나·민연재 작사	미래엔(민) 1학기 1단원 활동
문어의 꿈	안예은 작사	미래엔(신) 1학기 1단원 활동
우리의 꿈	이원희 작사	천재(노) 2학기 1단원 활동
키움	장기하 작사	지학사 1학기 1단원 활동

소설

작품명	작가	교과서 수록 부분
껍질을 벗다	프란시스코 히메네스	동아 1학기 4단원 본문
내 이름은 백석	유은실	미래엔(민) 1학기 4단원 본문
동백꽃	김유정	미래엔(신) 2학기 1단원 본문 비상(박영) 2학기 3단원 본문
먹고 싶다, 수박	장주식	천재(노) 1학기 4단원 본문
멍키 스페너	진형민	천재(정) 1학기 4단원 본문 비상(박현) 2학기 1단원 본문 지학사 2학기 1단원 본문 창비 1학기 3단원 본문
소나기	황순원	천재(노) 1학기 1단원 본문 동아 1학기 1단원 활동 미래엔(민) 1학기 1단원 본문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지학사 1학기 1단원 활동
오후 4시, 달고나	이승현	천재(노) 2학기 1단원 본문
옥수수 뽕소니	박상기	미래엔(민) 2학기 1단원 본문 미래엔(신) 1학기 4단원 본문
자전거 도둑	박완서	동아 2학기 2단원 본문 비상(박영) 1학기 4단원 활동
커튼콜	조우리	해냄 1학기 3단원 본문
파랑새	모리스 마테를링크	미래엔(신) 1학기 1단원 활동 비상(박영) 1학기 1단원 활동
하늘은 맑건만	현덕	천재(정) 2학기 1단원 본문 비상(박현) 2학기 4단원 본문 지학사 1학기 4단원 본문 창비 2학기 2단원 본문 해냄 2학기 1단원 본문
홍길동전	허균	동아 2학기 2단원 활동 미래엔(민) 2학기 1단원 활동 미래엔(신) 2학기 1단원 활동 비상(박영) 2학기 3단원 활동



희곡

작품명	작가	교과서 수록 부분
내일은 내일에게	정진국 각색, 김선영 원작	천재(노) 1학기 4단원 활동

시나리오

작품명	작가	교과서 수록 부분
걷기 왕	백승화, 남순아 각본	미래엔(신) 1학기 4단원 활동
그린 북	닉 발레롱가· 브라이언 커리· 피터 패럴리	천재(정) 2학기 1단원 활동
나는 보리	김진유	비상(박영) 1학기 4단원 본문
아이 캔 스피크	강지연, 유승희	해냄 2학기 1단원 활동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문지원	지학사 1학기 1단원 활동
제희	이주혜	미래엔(민) 1학기 4단원 활동

수필

작품명	작가	교과서 수록 부분
관찰아	장영희	동아 1학기 4단원 활동
나의 형벌	이세리(학생)	미래엔(민) 1학기 1단원 본문
버려진 두부와 내 엄지발톱	학생 글	창비 1학기 1단원 본문
부딪치면서 배워요	오소희	천재(정) 1학기 1단원 활동
선물	성석제	동아 1학기 1단원 본문
아름다운 흉터	이청준	해냄 1학기 1단원 활동
안녕, 나의 물고기	이다영(학생)	미래엔(신) 1학기 4단원 활동
어느 날 자전거가 내 삶 속 으로 들어왔다	성석제	해냄 1학기 3단원 활동
여름비와 방식	박이안(학생)	천재(정) 1학기 1단원 본문
열보다 큰 아홉	이문구	비상(박현) 1학기 1단원 활동
자연은 위대한 스승	김하경	천재(노) 1학기 1단원 활동
탑차를 끄는 사계절의 산타	김지원(학생)	비상(박현) 2학기 1단원 활동
튼튼이가 내게 준 선물	학생 글	천재(노) 2학기 1단원 활동
할아버지의 엄마 나무	학생 글	비상(박영) 1학기 4단원 본문



내 교과서가 이 책의
어느 단원과 연계되는지
알고 싶다면?

